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Myung Bo Um, Publisher

Yong M. Park, Editor

Phone: (206) 682-4252

#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秋天捐地之文震電驚  
獨之寧何福屬鬼之談無  
百無介之盡固不在尋常  
蹊徑中亦未處小亦不主格  
改東在後取雷一符 弘傳甲申  
茂林華學兄囑公 莊梅鄭贊

## 한인회 소식

- ※ 알리는 말씀
- ※ 재정보고
- ※ 일반 활동사항

## 공지 사항

- ※ 여권관계 수수료 개정

## 생활 정보

- ※ 고사리 공포론
- ※ 이름을 바꾸려면
- ※ 차사고 처리방법
- ※ 운전면허 시험문제

## 한인 논단

- ※ 현대인에 과제
- ※ 언론의 자세

## 토막소식

8  
August

알리는 말씀

동포 여러분 !

지난 7월초 한인회 특변소식 회보를 통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영사관과 본회와의 불편한 관계를 알려 드린바 있습니다. 타국에서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참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권익옹호와 협조를 위해 동포들 스스로가 만든한인회가 본연의 목적을 떠나 정치에 개입하면, 한인사회가 갈등, 분열과, 반목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회칙에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봉사업무에만 노력을 해왔습니다. 본인의 의견으로 한인회는 자주성과 주체의식을 가지고, 의연한 자세로서 봉사활동으로 운영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사관과의 상부상조하는 과정에서 이에대한 영사관측의 이해부족으로 급기야는 " 88 서울 올림픽 교민후원회 " 를 조직하는 방법과정에서 영사관측의 대화와 협의를 거부한 공개서한에 본회에대한 불만을 표시하여, 이에 한인회에서도 공개답변으로 맞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7월 17일과 20일 두차례에 걸쳐 이 총영사의 요청으로 면담하여, 서로가 원만한 해결을 보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동포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로 인한, 한인사회의 마찰로 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 약 2개월간의 한인사회는 시끄러운 상태이었고, 동포여러분들께서는 한인사회의 장래를 염려하시게 되었던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뜻있는 몇몇분들의 중재로 본인은 임시총회 소집 요구자들과 만나, 동포들간의 화합과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원만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본인은 한인회장으로서 동포들의 염려와 성원에 대한 감사함과 한인사회의 어려웠던일을 원만히 그리고 평화적인 해결을 하여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중재인들의 제안을 뜻있게 받아들여, 한인사회의 최근 사태에 대하여 한인회장으로서 동포들간의 화합을 위해 유감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중재인들의 제안은 다음의 3가지안을 제시하여, 본인은 화합된 한인사회를 위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 한인회는 회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사관과 협조한다.

둘째 : 영사관은 한인회를 존중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셋째 : 한인회와 영사관은 한인사회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본인이 한인회장으로서 한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 본회를 운영하고, 자주성을 가지고, 본연의 봉사업무 활동을 하는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인회가 주체의식도 없이 본연의 봉사업무를 소홀히 하고, 영사관이 좌지우지 하는식의 업무활동이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한인회는 한인사회의 대표기관으로서 공지를 갖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도 소신껏 올바르게, 사심없이 수행할것을 다짐합니다. 한편 임시총회 소집문제는 화합된 한인사회를 위하여 잔해결 되었음을 동포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일부전직 회장들도 앞으로는 한인회에 적극협조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재인들중의 대표두분이 영사관을 방문하여, 막 부연 영사에게 뜻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영사관측에서도 한인사회에 대한 어떠한 뜻을 표한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바입니다. 그동안 한인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동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회에 많은 협조를 보내주시어 명망하고도 발전적인 한인사회를 이룩합니다.

시애틀-와싱턴주 한인회 회장 엄명보

#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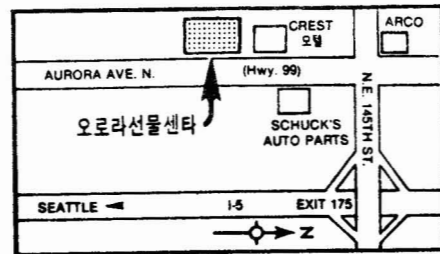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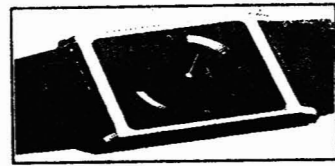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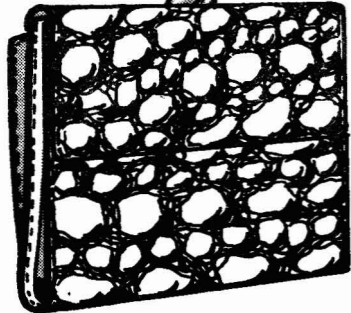
## 오로라선물센터 개업

시애틀에도 본격적인 선물센터가 새로 열렸습니다! 어느 기성 선물센터보다도 열가로 봉사합니다. 오셔서 보시면 압니다.

졸업선물 · 결혼 및 생일 선물 · 귀국선물

취급품목 : 각종 고급시계 · 불란서제 각종 가방 및 악세사리 · 비타민 · 전기제품 · 전화기 · 운동기구 · 화장품

Alligator



14107 Aurora Ave. N. Seattle 362-8617 454-2087

## 페더럴웨이 치과 진료안내

페더럴웨이 지역 교포 여러분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데 일조가 되고져, 아래장소에 새로 치과를 개설, 6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료하오니 많이 왕림하시기 바랍니다.

진료시간 : 매주(수요일, 금요일)  
오전10시-오후7시  
전화 : 838-3180(시애틀)  
927-4996(타코마)  
주소 : 1801 So. 324th Pl.  
Federalway(약도참조)

## 조병규 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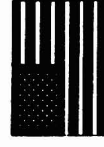




혁명신 동포 여러분!

1982년 7월 18일 및 8월 4일자 한국일보 씨에를 판에 일부 전직회장들의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현 한인회장을 임명적으로 사실 무근하게 인신공격과 중상모략을 한 것이었습니다. 본회가 봉사업무 활동에도 여러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사관측의 정치적인 행위로 한인사회에 분열과 이간질을 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하여 본회가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본회에서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 이 문수 총영사와 박 부영 영사에게 공개담변과 회책을 하였던 것입니다. 일부 전직 회장들은 이러한 이·박 영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본회에 대해서만 비난을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영사관측의 주장과 그들의 주장도 일치한 점이 우연의 일치라고만 보아야 좋은 것인지, 생가할 문제이었습니까. 그러나 본회에서는 화합된 한인사회를 위해서, 그들의 자속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까. 지난 8월 20일 뜻있는 본들의 증제로 일부 전직 회장들과 엄정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일보 씨에를 판에 보도된 성명서 내에서 몇가지 내용을 간단히 해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 일부 전직 회장들은 "엄명보 회장은 1979년도 이사로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 년 동안 공적신분에 있으면서 기획있을 때마다, 정부 기관은 물론 자기의 사에 맞지 않는 고포사회 인사들에게 극단적인 언사로 비방, 무고해왔음은" 운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 회장은 1979년에 한인회 이사회를 맡은 바가 없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기획있을 때마다 정부 기관을 비방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실 무근한 인신공격과 중상모략으로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인 것입니다. 7월호 특별소식회보 발행에 있어서 일부 전직 회장들이 주장하는 2000불 납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액수의 근거를 어디에 둔 것인지도 모릅니다. 7월호 특별소식회보 발행은 Bulk mail로 합쳐 약 220불 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쇄업자의 종이 대금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인회의 제정이 그렇게 쓸만한 여유가 있겠는지조차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정회 한인회보 발행도 1천불이 넘지 않습니다. 일부 전직 회장들은 근거없는 금액으로 본인들 중상모략을 하여, 엄 명보 한인회장에 대해서 동포여러분들의 잘못된 판단을 가지게끔 유도한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한인회에서 회비로 회보를 발행하여, 배부한 것이 왜 난비라고 주장했는지 이해가 곤란한 것이었습니다. 한인회 경비는 동포들에게 사랑을 알리는데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회비를 납비했다는 등의 근거없는 중상 모략이었습니다.



3. 임시총회 소집요구는 서류 미비로 기각되었던 것입니다. 목적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유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대리 서명이 많았으며 심지어는 다른 목적으로 서명을 요구해서 했다고, 전화 및 서신으로 진정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이사회에서 기각시켰던 것입니다. 또 회장이 서명인들에게 전화하여 협박한 사실조차 없으며, 이는 허무 때양한 중상모략이 있으며, 본인에게 무고죄로 명예훼손 인 것입니다.

이상의 몇가지 해명을 헤드린 데 대해서 동포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한인회와 한인사회를 염려해서 나섰다는 임시총회 소집요구 대표자들은 사실 무근한 내용으로 한국일보 씨에를 판에 인신공격과 중상모략을 하여, 한인사회에 논란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한인회의 어려움이 어떠한가를 직접 경험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한인회의 어려움을 모르는 체, 본회와 회장을 임명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이 문수, 박 부영 영사가 한인사회의 분열을 획책한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충고도 없이, 정부 기관 공무원이 기때문에 잘못을 추궁할 수 없다고 하며, 편파적인 비난은 도무지 이해가 곤란한 처사이었습니다. 또한 신문 보도 역시 일방적인 인신공격 기사를 한국일보 씨에를 판에 계속하여 보도 했던 것입니다. 신문이란 신문운리 강령에도 "신문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 마땅히 높은 품위와 긍지가 요구되며, 특히 저급한 행동이나 그 유인이 되는 행동은 일절 용납되지 않는다" 라고 다짐하고 있음에도 한국일보 씨에를 판은 이러한 진실성의 공정한 보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편견과 임방적인 보도를 하여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로 "진실된 사실의 전달자"로서의 신문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이란 보도의 공정성, 사회의 공기로서의 도덕성 등을 안지키고, 사실과 올바른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고, 사실을 숨기거나, 과장, 왜곡 보도할 때 그에 뒤따르는 역효과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결국은 독자들이 부려 "언론 불신의식"을 헤아날 수 없는 불행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대 보도는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독자들의 호기심에만 염두에 둔 기사는, 흔히 사실을 왜곡하게 되며, 그러한 경향은 결과적으로 사회의 중요문제를 외면하거나, 진실을 다르게 표현하는 자세로 변하기 쉬운 것입니다. 또 그러한 보도 태도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무책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서너리즘에 굶급한 신문은 결국 신문의 본분을 잃게 되고, 사회공공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본문을 읽을 때, 사회공공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인사회발전의 가능성 측면을 고려한 신문의 비판은 절대요망되지만, 무조



건의 개인 편견이나, 반항적 비판태도나 "전부 아니면 전무" 라는 식의 비판태도는 찬성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신문의 횡포는 하나의 폭군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볼때 최근의 한국일보 씨애틀판의 보도내용은 과연 사회의 공기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동포여러분들은 어떻게생각하고 계십니까? 신문이란 진실과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공정성과 보도할 가치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이 없는 흥미의취해보도나, 영리에만 눈이 어둡고, 자기가 못 마땅하다고 해서 개인감정을 염두에둔 기사는 신문으로서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최근의 한국일보 씨애틀판의 보도는 편견과 일방적으로 한인사회의 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못되는 태도로 동포들을 무시한 자기만의 고집 기사로서 가치조차 없는 것을 보도하는 철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것입니다. 한인사회에서 진리를 벗어난,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용납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처세술이라고 하는 요령적 기회주의와 소극적 무사안일주의의 생각은 점차적으로 지양되어야 할줄로 생각합니다. 최근의 여러가지일로 한인회와 한인사회의 발전과 여론 정상화를 위해 우리한민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도 한인회 이사, 임원들은 가장 어려운 해에 모처럼 단합된 한인사회를 이룩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잘하는것은 밀어주고, 격려해 주며, 잘못되는점은 따뜻한 충고를 해 줄줄 아는 풍토를 이룩합시다. 다행히 뜻있는 중진인사들이 중재에 나서, 한인사회 내의 어지러움은, 잘해결 될것으로 믿읍니다. 본회는 전과 다름없이 계속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것입니다. 또한 동포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모두 진리를 바탕으로 진실된 삶을 영위합시다. 그리하여 주변의 가족과 서로가 명량한 이웃을 이룩합시다.

1982년 8월 31일

씨애틀 - 와싱턴 주 한인회

재정보고

(6/11 - 8/15/82)

(경 칭 약)

I. 수입지부

가. 회비

114.	박 법 신	\$ 20.00
115.	김 기 영	\$ 50.00
116.	김 두 영	\$ 50.00
117.	김 기 섭	\$ 10.00
118.	강 영 덕	\$ 10.00
119.	김 동 수	\$ 20.00
120.	Ronald G. Brown	\$ 20.00
121.	양 태 승	\$ 20.00
122.	박 춘 환	\$ 20.00
123.	엄 대 섭	\$ 50.00
124.	윤 태 호	\$ 10.00
125.	김 풍 걸	\$ 20.00
126.	서 영 호	\$ 15.00
127.	황 의 태	\$ 15.00
128.	장 기 호	\$ 15.00
129.	김 원 곤	\$ 15.00
130.	조 성 옥	\$ 15.00
131.	이 현 기	\$ 15.00
132.	정 주 영	\$ 10.00
133.	함 재 명	\$ 10.00
134.	정 병 국	\$ 20.00
135.	김 명 손	\$ 30.00
136.	박 건 흥	\$ 15.00
137.	정 문 식	\$ 15.00
138.	김 병 섭	\$ 20.00
139.	이 선 복	\$ 30.00
140.	김 재 희	\$ 20.00
계		\$ 560.00

나. 기부금

1) 일반 기부금

한양대학교 동문회	\$ 20.00
정 경 원	\$ 10.00
계	\$ 30.00

2) 광고 기부금

정 동 수	\$ 200.00
왕 공	\$ 60.00
	\$ 30.00
이규영 계리사	\$ 100.00
그랜드 식품	\$ 100.00
노 대 현	\$ 30.00
박약곡	\$ 100.00
Midway Union76	\$ 50.00
Ronal G. Brown	\$ 30.00
보혜사 한방원	\$ 40.00
오로라선물센터	\$ 50.00
가나안선물센터	\$ 20.00
계	\$ 810.00

3) 한미수교 1백주년 기념관계

씨애틀 한인형제교회 성도	\$ 640.00
씨애틀 한인 장로교회 성도	\$ 300.00
계	\$ 940.00

기부금 합계 \$1,780.00

수입 총합계 \$2,340.00

II. 지출지부

1.	사무용품비	\$ 23.53
2.	사무실 직원 봉사료	\$ 875.00
3.	백주년 예술제, 백일장상품	\$ 123.55
4.	한인회보 인쇄소 (81년도분)	\$ 260.00
5.	밴쿠버/씨애틀 합동야유회 관계제 비용	\$ 579.87
6.	사무실 전화요금 (6/13)	\$ 106.88
7.	사무실 Rent (7,8월분)	\$ 350.00
8.	한인회보 (6,7월호)인쇄비	\$ 900.00
9.	백주년 예술제, 장소 사용료 잔액	\$ 4.26
10.	우편료	\$ 31.54
11.	한인회보 발송용 Permit De- posit	\$ 60.00
12.	Seattle Public School교실 Rent (8/29/82 까지 완납)	\$ 129.10
13.	화환대 (3건)	\$ 85.59
14.	제 37회 광복절행사 포스터 도구및수수료	\$ 34.96
15.	내빈 접대비	\$ 25.70
16.	제 37광복절 행사용 마이크 및 스피커 사용료	\$ 26.63
17.	기념식장사용료	\$ 20.00
계		\$ 3,636.61

전월 (6/10) 잔액 \$3,134.02  
총 수입 \$2,340.00

총 지출 \$ 3,636.61

기부금 계정

1. 수입

정기예금 이자 수입 \$ 861.55

2. 지출

Bank Service Charge \$ 3.34

정기예금 계정으로대체 \$1,413.04

계 \$1,416.38

현재(8/15) 잔액 \$ 180.16

건축기금 정기예금 \$16,000.00

**스튜디오 꽃집**  
**THE FLOWER STUDIO**



- 결혼 약혼식꽃
- 실내용 화초
- 각종 축하용 화분
- 장례식 꽃등

— 교포에게 특별봉사 —  
전화만 주시면 즉시 배달해 드립니다  
4222 EAST MADISON SEATTLE, WA 98112  
☎ BUS 325 5032 RES :367 1534

교민사회소식

■친선경기 종합우승

지난 7월 10일 캐나다 밴쿠버 시에 소재한 New Brighton Park 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밴쿠버 지역과 씨애틀 지역 교민들의 친선 합동 야유회 및 경기가 열렸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현장에 모인 양지역 교포들은 마련해온 음식을 내놓고, 여기저기서 불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 채우고, 서로 마주앉아 담소를 즐겼다. 한편 경기는 배구시합을 씨애틀이 우승으로 끝내고 이어 식이 거행되었다. 양지역 한인회장들의 교민들에게 인사말이 있었고, 출전한 선수들에게 선전분투를 당부하였다. 또한 밴쿠버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강 대완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양지역 교민들이 화목과 단합을 해서 한인사회의 발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식이 끝난후 점심들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양지역 교민들의 우정을 나누었다. 오후에 계속된 경기에서 장년팀과 대표팀의 축구시합이 있었고, 줄다리기, 여자 텃치볼, 정구 등의 경기가 있었다. 씨름대회는 밴쿠버 지역팀의 기권으로 씨애틀 지역이 우승, 종합성적은 1000점 만점에 900점을 따낸 씨애틀 지역이 종합우승을 하였다. 이날 각팀으로 뛰어난 씨애틀 지역 선수들은 선전을 하고 우승기를 갖고 돌아왔다. 지금까지 종합 전적은 총 11회에 걸친 경기에서 씨애틀이 5승 4패 2무승을 기록하였다.

■ 긴급 합동 회의

88년 서울올림픽 후원회 발기문제로 씨애틀 영사관의 공개서한에 대해 토의키 위해 지난 7월 4일 6시 한인회 회의실에서 이사, 임원 합동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사관의 일방적인 공개서한에 대해, 의견들을 교환하고 서한내용에 대해 한인회의 입장을 교민들에게 공개 답변을 하기로 참석자 전원 일치로 가결을 보았다. 이날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무규, 이기락, 서광선, 전영환, 김금순, 강성국, 김정태, 박우석, 유월상, 엄명보.

■ 8.15 경축 체육대회 연기

제 37회 광복절을 맞이 하여, 경축 체육대회를 본회 주최로 열려고 했으나, 본회의 사정에 의해 준비치를 못하여, 무기한 연기 하고, 기념식만 갖기로 하였다.

■ 임시총회 소집 요구 기간

지난 7월 6일자 본회의 특별소식에 의해 씨애틀 주재 영사관과 본회와의 서로가 불편한관계로 일부 전직회장들과 일부 인사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서가 서명한 명단과 같이 본회에 7월 22일 접수되었었다. 7월 24일 이사, 임원들이 모여 이를 검토하였으나, 7월 22일 현재로 서명인중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28명으로 회칙 9조 1항에 의거 30명 선에 미달되, 이를 다음약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음

1. 회칙 9조 1항에 의거 소집요구 정족수 미달.
2. 서명인 용지 윗머리에 목적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음.
3. 임시총회 소집요구 안건에 대한

이유 설명이 없음.

4. 소집요구 서명인의 대표자 명단이 없음.

위와 같은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누구든지 서명을 요구할때는 무슨 목적 표시가 되어있나 확인 하시고, 완전한 이해를 하시고,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본회에서 접수한 후에 무슨 목적인줄 모르고, 서명을 한 교포들의 많은 전화가 본회에 걸려온 사실로 이에 주의를 환기 시킵니다.

1982년 7월 28일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 총무부.

### ■ 김이사장 불신임 의결

지난 7월 16일 오후 7시 김현길 이사장의 요구로 한인회 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열렸었다. 요즘 본회와 영사관과의 불편한 관계 문제를 의논키 위하여, 회의가 열려, 각 이사님들은 김이사장에게 현 사태에 대해 이사장으로서 무책임한 언행을 함부로 하고 다니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와는 한마디의 의논없고, 한인회에 나오지도 않는 점등을 지적하고, 이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질문을 하였었다. 회의 중반에 들어 이사장 직 불신임안이 제안 채택되어 본인인 김이사장은 이기락 이사에게 사퇴를 넘기고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비밀투표로 6:0의 찬성으로 이사장직 불신임을

가결하고, 빠른 시간내에 새 이사장을 뽑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7월 4일의 긴급 이사, 임원 합동회의 결의를 재확인 하였다. 강동언씨는 늦게 참석후 곧 퇴장 하였다. 이날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현길, 이기락, 서광선, 전영환, 강동언, 김금손, 강성국, 엄명보.

### ■ 광복절 기념식 거행

제 37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레이크시리 스쿨 강당에서 동포들이 모인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과거에 저질렀던 그들의 만행을 미화하기 위하여, 3.1운동을 폭동이라고 하며, 한국침략을 진출 또는 내정권 접수라고, 그들의 국정 교과서에 왜곡 선전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날 기념식은 박창씨의 특송으로 시작되어, 김종원목사님(연합감리교회)의 축도로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염원하였으며, 이어 엄명보 한인회장은 일본의 왜곡선전을 규탄하며, 해외에 나와 있는 모든 동포들끼리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단결된 힘을 발휘하자고 하였다. 이문수총영사의 축사에 이어, 와싱턴주 기독교 평신도 회장인 김병섭 장로는 회고담을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과거 만행과 경험담을 말하여, 그들의 왜곡선전을 규탄하였다. 기념식은 호응덕 장노님의 만세 삼창으로 끝났으며, 사회는 강성국 부회장이 맡았었다.

### ■ 서광선씨 이사장 피선

지난 9월 4일 이사.임원회의에서 새 이사장및 부이사장을 새로 선출하였으며, 결원이된 이사를 보선 하였다.

이사장 : 서광선  
부이사장 : 이기락  
이사 : 손옥봉

이날 회의에서는 12월에 있을 "아리랑의 밤" 행사에 관하여 토의 하였으며, 한인사회의 정화에 대해서도 방안등을 의논하였다.

### ■ 동창회 소식

■ 경희대학교 동문회(회장 김준식)에서는 총장배 쟁탈 동문들의 친선골프대회가 8월 28일 퓨알라프 골프장에서 있었다. 이날 골프대회는 많은 상품을 마련하여, 동문들의 시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챔피언, 이영호  
메달리스트, 박수남  
1등, 백응기 근접상, 김상목

2등, 김상목 장타상, 김형근  
3등, 김준식 럭키상, 주상걸  
부비상, 김정부

■ 고려대학교 교우회(회장 김종구)에서는 지난 8월 15일 와싱턴레이크 근치의 에드워드 팍에서 임시총회겸 정기야유회를 많은 교우들의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었다. 이날의 임시총회 안건은 최근 "한인사회 사태"에 관하여 관련된 교우의 경위를 듣고, 의논을 나누었으며, 박건홍(대학원)교우에 대한 제명을 참석자 전원 일치로 가결하였다 한다.

■ 한양대학교(회장 김길량) 동창회에서는 오는 9월 11일 오전 10시 케마노섬에있는 스테이트 팍에서 야유회및 동창들의 낚시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동창들의 가족과 같이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습니다.

## 이영주 치과

<b>타코마 지역</b> 진료일시: 화, 목, 토(아침9시~6시) 진료장소: Sun Plaza Suite #10 10209 Bridgeport Way SW Tacoma, 98499 <b>581-1412</b>	<b>시애틀 지역</b> 진료일시: 월, 금(아침9시~6시) 수(낮12시~저녁9시) 진료장소: Stevens Dental Center 20728 - 76th Ave W. Edmonds, 98020 <b>775-3456</b>
---	---

## 홍인표 박사

American Board of Psychiatry  
& Neurology  
Clinical Assistance Prof. of U.W.

###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587-5747, 587-3748**  
901 Boren Ave Cabrinitower Suite #707

**공지사항**

주씨예를 한국 총영사관에 의하면 여권 관계 갱신 기간 연장 및 수수료 인하에 관한 건과 해외 고포들의 국내 재산권에 관한 지침이 본국 정부로부터 통보 되었다 하오니, 영사관이나 한인회로 문의 하시면 통보 내용대로 안내 드립니다.

1. 정부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별첨과 같이 재외공관 여권관계 수수료율 인하, 82.8.18부터 시행케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고 민사회에 널리 전파될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참고)
2. 아울러, 82.7.31까지 여권 갱신발급을 마치도록 규정했던 여권법 시행령도 개정, 83.12.31까지 장기 해외체류자의 여권을 연장 갱신발급케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별첨 2 참고)

재외공관 수수료 인하내용 (82.8.18부터)

별첨 1. (단위: 미불)

구분	비고	개정인하된 수수료 (82.8.18부터)	총전수수료	비고
단수(1년)여권: 본부에서만 발급	인하	15.00	20.00	
유학여권	인하	15.00	20.00	
유학생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여권	태국인하	15.00	60.00	
거주(이민)여권	* 불변	20.00	20.00	
상용·문화주재원	인하	40.00	60.00	
기술훈련	인하	40.00	60.00	
취업	인하	40.00	60.00	
기타 동거여권(상용·문화주재원, 취업, 기술훈련)	인하	40.00	60.00	
기재사항 변경	"	5.00 (단, 유학여권과 유학생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동거여권 기재사항변경:2.00)	6.00	
사증발급 추가(1회)	"	3.00	4.00	
전신수수료	1회전신	6.00	8.00	
	회신율 요 할때	12.00	16.00	

별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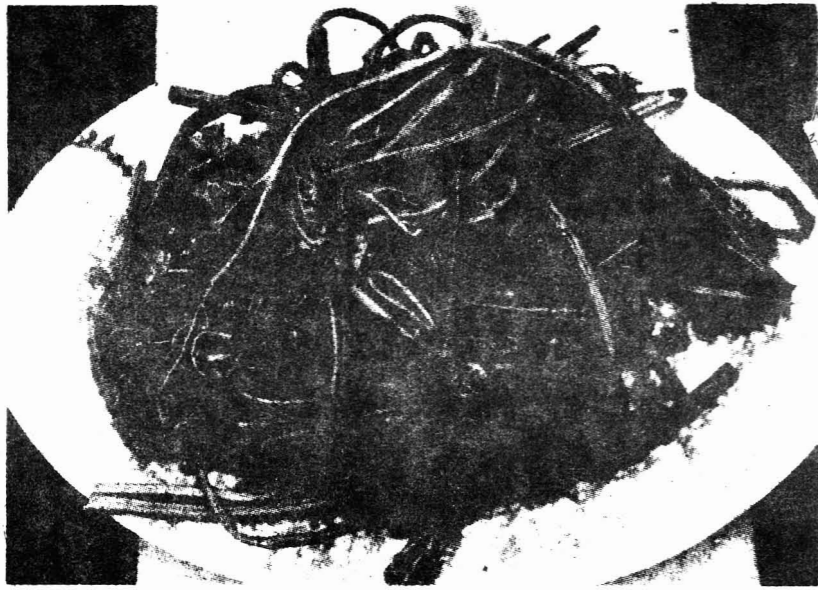
여권 갱신 발급 연장 내용

- 종전
  - 구여권 (81.9.30. 이전발급받은 여권)양식을 82.7.31.까지 신여권 양식으로 갱신발급토록 함.
  - 개정
    - 여권 갱신발급 기간을 83.12.31까지 연장함.
    - 82.7.31까지 구여권(81.9.30.이전 발급받은 여권)을 갱신발급 받지 않고 긴급한 사유로 귀국한자는 동여권을 가지고 일시귀국은 할수 있으나, 재출국시는 반드시 외무부에서 (재출국전) 여권 갱신발급을 받아야 함. (따라서 가끔적 임시귀국전에 재외공관에서 갱신 재발급을 받아두는 것이 편리할 것임)
- 또한 81.7.31. 이전에 발급되고 84.1.1이후 까지 유효한 구여권을 새양식여권으로 단순 재발급(구여권 잔여유효기간부여) 할수 있도록 조치함. 이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정상수수료의 반액)
  - 1) 단수여권 (1년이내;본부에서만 발급 : 7.00)
  - 2) 유학여권 및 유학생의 배우자·직계비속의 동거여권 : 7.00.
  - 3) 거주(이민) 여권 : 10.00
  - 4) 기타 (취업, 상용주재원, 문화주재원, 일반동거여권등) 복수여권 :20.00

\* 예 : 81.4.1.발급되고 86.4.1.까지 유효한 거주여권의 경우,  
 - 82.9.1. 발급받는다면 유효기간은 86.4.1.(원 유효기간)까지이며,  
 수수료 10.00이 됨.

# 영국에 고사리 공포

“위암유발” ..... 잇단 학계 연구 발표에 충격  
정부에서 보조금 주며 고사리 제거운동



최근 美國에서는 고사리가 위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임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정부가 앞장서 고사리제거작업에 나서고 있다.

고사리가 위암에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여러가지의 연구결과가 잇달아 영국 학자들에 의해 발표되자 영국 농수산성은 영국도처에 뻗어 서식하고 있는 이들 고사리를 제거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까지 주고 있다. 고사리의 독성이 영국 사람에게 알려진지는 오래다. 3백여년전 영국 전역의 고사리서식처를 답사하고 다닌 식물학자 「니콜라스 골 페퍼」는 그의 유명한 저서 「약용재로서의 초본과」에 고사리 줄기를 물에 담가 끓여 먹으면 회충요충등 몸안의 기생충을 박멸할수 있으며 뿐만아니라 임산부가 갖는 아나아린고사리순을 잘못 입에넣으면 뱃속의 태아가 죽는다고 적어놓았다.

1893년 영국 전역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고사리의 독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영국 사람들은 목격했다. 가뭄 때문에 목초가 말라죽자 방목하던 가축들은 결국 고사리마저 뜯어먹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을 먹은 소들은 하나같이 심한 출혈과 식욕감퇴 장파열 괴양이 도지면서 고열로 쓰러져 갔던 것이다. 특히 소땀에 치명적이었다. 고사리를 뜯은 말역시 신경계통에 장애를 일으켜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다가 완전히 균형 감각을 잃고 만다. 고사리의 독이 신경조직에 필수적인 비타민 B의 생성을 돕는 효소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가축에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1960년에야 밝혀졌다. 오랫동안 들에서 고사리를 뜯어먹던소가 방광벽에 종양이 생기고 소가 오줌을 볼때마다 심하게 출혈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쓰러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악성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죽는데 실험결과 이와같은 증상은 모든가축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78년 고사리가 많기로 유명한 서북 「웨일즈」 지방에서의 한 연구결과에 의해 이같은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고사리가 많이 자라는 고지대의 소들은 처음에 식도와 방광벽에 암세포가 심하게 번지며 고사리가 적은 저지대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은 고사리가 암과 직접관계가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그것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은 영국인들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서양사람들은 고사리를 전혀 입에 대지 않기 때문이다. 70년대에

후 영국에서도 위암환자가 많이 생겨나면서부터 학자들은 고사리가 어떻게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가 하는 간접경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도드 웨일즈」 대학 생화학고수인 「앤리스 에반스」 박사는 생쥐와 젖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결과 사료에 고사리를 섞어 먹이면 젖소에서나오는 우유속에도 고사리의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물론 우유만이 그 매개체는 아니다. 버터 치즈등 문제의 소에서 나오는 모든 유제품은 물론이고 인근에 고사리 서식처를 가진 수원지의 수도물까지도 사람에게 고사리의 독을 옮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고사리를 데쳐 먹을 경우 그 독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 소금물이나 중탄산소다에 삶으면 고사리의 암매개 기능이 90% 나 없어진다고 한다. 고사리의 번식력은 매우 강할뿐 아니라 또한 그것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값 비싼 고사리를 뿌리지않고도 경제적으로 고사리를 퇴치할수 없을 까 묘안을 궁리중이다.

(동아일보에서)

# 가나안 여행사

\*친절과 신용본위\*

- 국제 및 국내 항공권 판매
- 각종여행 수속
- 항공권 월부판매
- 이민수속 및 가족초청서류
- 교포여권 갱신업무
- 각종서류 번역
- 각종공증 업무
- 항공권 배달

409 Maynard Ave. So., Suite 107  
Seattle, WA 98104  
(한일각앞)

전화 (206) 624-6461 낮·밤

# 보혜사 한방원

保惠師 漢方院

- 보약 ● 녹용 ● 우황청심환 ● 첩약

· 사단법인 대한침구사협회원  
· 대한침구사 협회장 표창장 수령  
· 미국가주 침술사 면허소지

영업시간 : 당분간 평일은 오후5시~9시까지  
토요일은 아침9시~오후9시

762-8566 762-6493 8107-22nd Ave. S.W. Seattle 98106

# 치질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희소식!!

수십년된 치질도 아프지 않게 치료됩니다.

전화예약 바랍니다.

보혜사 한방원 최창하  
762-8566 762-6493

## ■ 미국에서 이름을 바꾸려면?

미국에 영구히 정착하려는 데 다수가 미국식 이름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름과 성( )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름을 변경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여 본다.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지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박정희라는 사람이 자기를 찰스·박이라고 지어 사용하며 드라이버 라이선스도 그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제 박정희씨는 찰스·박이 되었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모든 법적인 서류, 예를 들면 집문서 같은 것은 반드시 본래의 이름으로 서명해야 한다. 성명을 변경하는 법적인 절차는 대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시민권 신청을 할 때의 이름을 법적으로 바꿀 수 있다. 시민권 신청 때에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기록하여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미국 정부로 부터 허락을 받게 되고 박정희씨는 이제 찰스·박으로 미국 시민의 됨을 선서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방법은 정식으로 성명 변경 청원서를 내어 변경하는 절차인데 이 경우 가주에서는 가주 고등법원 (California Superior Court)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반드시 변경 이유를 서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박정희씨가 이름을 변경하는 이유가 사업상의 이유로, 이름 변경이 그의 사업장 이름 변경이 이득이 될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거나, 영어로 부르고 이해 하기에 "찰스"라는 편하기 때문이다. 일단 청원서가 제출되면 신문에 공고하게 되며 곧이어 본인이 직접 판사앞에 출두해서 이유서가 판사에

의하여 받아들여 졌음을 듣고, 판사는 이름 변경을 선서한후 서명함으로써 절차가 끝난다. 그후 법원에서는 이름 변경증명서를 국무성으로 보내어 이름 변경 기록을 하게 된다. 위의 절차는 비교적 빠르고 간단한 작업으로 개인이 직접할 수 있기도 하고, 적은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할 수도 있다. - 엘리엇 버코워츠 변호사는 현재 베버리 힐즈에서 개업하고 있으며 주로 사업, 부동산, 개인상해, 이민문제를 다루고 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것이며 각주마다 법이 다름을 알려 둔다 - .

## ■ 자동차 사고 처리방법

수많은 차가 만일보험이 없이 운행되고 있다면 과연 어떠한 영향을 사회에 미치는가를 깊이 의식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모두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 그저 마음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의 정의는 언제있을지 모르는 재난 혹은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을 보험회사가 가입자 대신 떠맡아 재난이 일어나기 바로 그 전상태로 환원시켜 재난에 충격을 최소로 만드는 데 뜻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뚜렷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보험없이 운행을 하는 이유는 다만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제적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무지에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교포들 중에는 미국생활의 경험부족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사태에 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 있으면 즉시 보험회사 (대리인)에게 보고를 할 것이다.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으면 DMV에 사고를 보고하고 (이때는 피해액이 5백달러가 넘거나, 부상자가 있을 경우) 변호사나 보험대리인과 상담을 하여 사고 수습을 하여야 된다. 사고 발생후 많은 교포들이 본인의 과실이 아니었던 사고는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보상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알고 데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앞

에서 만한 DMV 사고 보고를 꼭 해야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일 DMV에 사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사고의 과실도 없으면서 역시 면허증을 정지 혹은 취소당하게 되는 벌칙이 있으니 명심해야겠다. 교포들은 교통사고시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를 다루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현장에서 신분만 서로 교환하고 헤어진 경우 아무런 기록이 없을 것으로 간주 DMV에 보고를 않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면허증 취소 통지를 받고 「어떻게 DMV가 내게 사고가 있었는가를 알았을 까」 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며 수습을 부탁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상대방(혹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DMV에 보고를 했기 때문인 것이다. 사고후에는 모든 증빙서류를 최소한 3년 보관하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개인 운전 기록 (DRIVING RECORD)에는 사고에 과실 여부를 막론하고 사고에 참여되었던 모든 운전자의 면허번호가 사고난 날짜, 장소와 함께 기록되어진다. 이 사고 기록은 3년간 DMV에 남아있게 되어, 보험 가입시 본인은 사고가 없었다고 하여 가입을 시키면 보험회사에서 최소통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그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닌 즉 상대방이 나를 뒤에서 받았다는 등의 구두로 사건 내용만 설명하고 아무런 증빙서류가 없으면 보험회사는 DMV에 써있는 사고를 그대로 본인 잘못으로 인정하여 보험료의 인상, 최소등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증빙서류가 되는 것인가? 사건 당시의 경찰사고 기록서, 혹은 상대방의 과실이면 상대방 혹은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보상금(수

여러분의 IATA-ATC 공인

## 동 서 여 행 사

(206) 623-2157) 낮  
623-2158) 낮  
367-1935 밤

- \* 국내 및 국제 항공권 판매
- \* 국내외 관광안내
- \* 항공권 월부판매 알선
- \* 각종 여행수속
- \* 이민수속 및 가족초청 서류작성
- \* 시민권 취득 신청서류작성
- \* 공증업무

SECURITIES BLDG. SUITE 635  
1904 THIRD AVENUE  
SEATTLE, WA 98101

이 영 호

표)의 사본,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이다. 이때 본인 변호사의 개인편지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은행 입금전에 꼭 복사하여 3년간 보관하여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 교포들은 자동차보험이 본인과 상대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다 잘 아는 사실이나 자동차보험이 은행을 위해서도 들어야 된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케이스는 은행에서 일부를 융자해서 자동차를 구입한경우다 자동차 융자액의 지불이 완납될때까지 본인 차의 도난및 화재, 충돌 피해보상 규정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된다. 이것은 은행에 융자 신청시 계약서에 이미 동의한 사항이므로, 본인이 차를 산 후 보험가입을 안하면 혹은 중도에 보험계약을 취소하면 은행당국에서 강제보험(Vendor's Single Interest) 즉 V.S.I. 에 가입을 시킨다. 이때 자동차 페이먼트가 별안간 늘어나거나, 수년후 본인은 차페이먼트가 끝났으니 은행에 가서 핑크슬립을 요구하면 그동안 은행이 대신 내준 강제 보험료를 지불해야만 자동차 명의권(핑크슬립)을 돌려주게 된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소위 티켓을 받으면 가능한한 운전교육(트래픽스쿨)을 받아 기록을 깨끗하게 함은 물론 운전교육에서 얻은 많은 새로운 안전교육 또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교통위반 티켓을 받아서 벌금을 내려고 하다가 기한이 넘거나 혹은 아예 티켓마저 분실하여 당황을 하다가 기억속에서 사라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국에서는 절대로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 무식이 정상적 참작은 될수 있으나 죄는

역시 죄다. 위와 같은 경우 가까운 DMV의 운전기록 담당 창구에 가서 본인 면허증을 제시하고 50센트를 내면 운전기록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티켓을 받았고 현재 벌금을 냈는지의 여부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 운전기록을 갖고 해당지역의 법정에가서 그동안 밀린벌금을 이자까지 가산하여 지불해야 되며 계속 지불을 하지않고 그냥 두면 운전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된다. 만일 이와 같은 경우 해당지역 법정이, 예를 들어 수백마일 떠러진 지역일때 혹은 바빠서 법정까지 갈수 없는데 AAA회원이면 누구나 가까운 지역의 AAA사무실에 가서 대신 처리를 할수 있는 특혜가 있어 편리하다. 이때 AAA회원카드와 티켓카피 혹은 운전기록을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처리가 된다. 수수료는 물론 없고, 벌금만 수표로 받게 된다.

**사보이 식당**  
 ☎622-7424  
**선지해장국전문!**  
 한국진미가 **순대국 및 순대** 나는  
**카텔라운지** 시간 아침11시~새벽2시 금,토 새벽4시까지 일요일 오픈 >

# BRITANNICA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최고의 양서

※ 국민학생 중고교생 및 대학생들의 학업성과 실력향상의 길잡이

- \* ENCYCLOPAEDIA BRITANNICA 대영백과사전 30권
- \*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세계 사상 전집 54권
- \* ANNALS OF AMERICA 미국 역사 20권
- \* JUNIOR ENCYCLOPAEDIA 국민 학생용 백과사전 15권
- \* WEBSTER'S DICTIONARY 7개국 언어사전 3권
- \* 기타 다수

◎ 자녀의 입학·진학·졸업생일 및 X-Mas 선물의 최고품



전 세계 최고의 권위 대영 백과사전

가정의 도서관

워싱턴주 · 오레곤주 총판 대리점  
 전화 (206) 581 ~ 5828  
 타코마 582 ~ 6899

# 美洲東亞

주간

# 스포츠특집



'THE DONG-A ILBO DAILY NEWS

보다 정확 · 신속한 보도를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광고신청 시애틀 (206) 244 ~ 9930

# 세탁소 전문부동산 안내

- \*세탁 업체를 매도하실 계획이신가요?  
100% 자신있게 알선하겠습니다.
- \*기존 업체를 매입하실 계획 이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업소를 안내 하겠습니다
- \*엄선한 장소에서 신장비로개업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모든 장비를 세상에서 제일싼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 \*경험이 없으신 분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하겠습니다.

연락하실 무료전화 워싱턴주 : 1 - 800 - 562 - 1723  
미주전역 : 1 - 800 - 426 - 1814

ECKSTROM EQUIPMENT INC, 노대현 올림  
BOB SNYDER REAL ESTATE CO, (미국명 Dean)

# LEE'S 자동차 정비 센터

Good Year  
Dayton.  
타이어

개소린 세이브  
엔진 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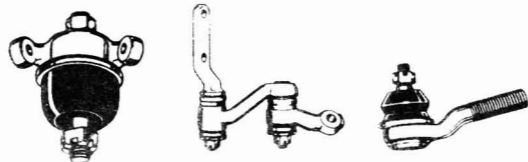
후론트 얼라인먼트  
컴퓨터 스피너바란스  
부레이크 트랜스미션.



**STOP WASTING GAS!**  
Our "gas saver tune-up" is like getting a free gallon of gas with every fill up—

We feature the best in electronic automotive testing—  
**THE ALLEN ENGINE ANALYZER**  
Our exclusive 36 point gas saver tune-up includes a complete check of the cranking and charging system, ignition system and fuel system.

**SAVE FUEL NOW!**  
Tune-up and be tank-full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전화 362 ~ 4449  
이 점 태

# 공관및지사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BOX 24992 SEATTLE WA98124 (206)682·4252		씨애틀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1125 UA Bldg .6th Ave (206)682.0132
대한무역진흥공사 씨애틀무역관 900-4th Ave #1245 Seattle WA. (206)623·3588/9		한국일보씨애틀지사 <b>THE HANKOOK ILBO</b> 7320-20St Ave N.E. Seattle WA. 98115 (206) 525·9222
	中央日報 (206)838·3155 927·5915	<b>한국외환은행</b> KOREA EXCHANGE BANK SEATTLE BRANCH 600 UNIVERSITY STREET SEATTLE, WASHINGTON 98101 (206) 622-7821
	美 洲 東 亞 日 報 社 <b>THE ORIENTAL DAILY NEWS</b> (206) 244~9930	<b>韓進 液 運</b> HANJIN CONTAINER LINES, LTD. KOREAN FLAG SERVICE 157 YESLER WAY SEATTLE, WA 98104 ☎(206) 447-9422

# 한인업소 안내

<b>여 행사</b> 가나안 여행사 CANAAN TRAVER SERVICE #107·409May nard Ave.So Seattle WA98104 (206)6246461	동서여행사 EAST WEST TRAVER SERVICE Securities Bldg #635 Seattle WA98101 (206)623·2157/8 367·1935	타코마 한국여행사 11222 Bridge port way . S.W. Tacoma. WA 98499 588-0333/7788 이 주 응
김여행사 KIM s TRAVEL SERVICE #619Lloyd Bldg603Stewart St Seattle W A 98101 (206)624·2227/8	킹여행사 KING TRAVEL AGENCY 504 S.King St. Seattle.WA98104 (206)624·9844	<b>식품점</b> 중앙식품 9641-15th Ave S.W. Seattle WA 98106 (206)762·5620
대한여행사 KOREA TOURIST BUREAU Dana Plaza Sute#5 31260 Pacific Hwy.So. Federal Way WA98003 Tacoma(206) 952·5595 Seattle(206)941·8866	한국여행사 KOREA TRAVER SERVICE 2636 2nd Ave Seattle WA 98121 (206) 623·9290	아줌마식품 AHJUMMA ORIENTAL FOOD 31260 Pacific Hwy.S Federal Way.WA98003 (206)941-123
헨리장여행사 9002 12 th Ave N.E. SEattle WA.98115 (206) 523·7057/2781	태평양여행사 PACIFIC TRAVER SERVICE 5649-17th Ave S.W Seattle WA 98106 (206) 767·7390	그랜드식품 GRAND FOODS 8512-20th NE Seattle WA 98115 (206) 525·8334
한인업소안내 광고 씨애틀한인회 전화 (206) 682~4252		

**한인업소 이용하여 한인사회 육성하자**

<b>탐스종합도매상</b> 3306 So. 170th St Seattle (206)243-7040(타) 582-1158	<b>장미상회</b> 1414 So. 324th St. Federal Way WA. 98003 (206)941-8144	<b>사보이식당</b> 선지국 해장국 전문 622-7424
<b>재일식품</b> 21405 Hwy 99 #A Lynnwood WA 98036 (206)774.4103	<b>부한식품공장</b> 방앗간 마켓 각종떡 두부 참기름 10001 KLINE ST. S.W TACOMA, WA. 98499 TEL. (206) 588-7300	<b>한일각</b> Hanil Korean Restaurant 409 Maynard Ave. S. Seattle, WA 98104 (1st Fl. Bush Hotel in China Town) (206) 587-0464/0465
<b>서울식품</b> 6405 Steilacoom Blvd SW Tacoma (206)588-9222	<b>한미상회</b> ORIENTAL FOODS & GIFTS 9618 PACIFIC AVE. S. TACOMA, WA 98444 535-2423	<b>자동차수리</b> 101 바디샵 525-5778 미국차, 외국차, 바디 페인트 무료견적 All Insurance Work 10059 Aurora N Seattle
<b>동양식품</b> 11325 Roosevelt Way N.E. Seattle WA. 98125 (206)365-5540	<b>SEAHURST HANDY MART</b> 15219-21 St Ave S.W. Seattle, WA 98166 (206) 242~ 2050	<b>레이크우드 자동차 정비</b> ★튼업·부레이크 전문 ★최신장비 (SUN SCOPE) McChord 공군부대 입구 (EXXON)588-3983
<b>한국식품</b> 우와지마앞 682-2992 514.6th Ave S. Seattle 98104	<b>왕궁식당</b> 시애틀 수타국수 전문, 중화요리 오전11시30분~오후10시까지, 7119 Empireway S.723-1958	<b>올림픽 바디샵 (타코마)</b> 성실봉사, 무료견적, 무료토잉 ◆보험수리 ◆청구대행 4040-100th SW Tacoma 584-2865
<b>현대식품</b> 10402-16th Ave S.W. Scattle WA 98146 (206)762-4792	<b>산장</b> 중화 및 한식요리 연회석완비, 나이트클럽 10203 Sales Rd Tacoma 582-9889	<b>타코마 오리엔탈 바디샵</b> BODY & PAINT 등 일체 한국인 특별할인 보험수리전문 582-1364, 584-1938
<b>켄트상회</b> 23633-104th Ave S.E. Kent .WA 98031 (206)852-8388	<b>귀빈원</b> 영업시간 아침 11시30분~밤10시 11101 Pacific Hwy SW 588-9262	<b>CHOI's Auto Service</b> 국내차중 모드, 닷지, 세보레 도요다 불보, 닷선, 혼다만 취급. 달러 8년경험의 524-2960
<b>아로라식품점</b> 16300 Aurora Ave N. (206)542-9489/6577	<b>국일관</b> 한국식 중화요리 수타국수 각종연회석완비 영업시간 11:30am~10:30pm 12408 Pacific Hwy SW Tacoma 582-7720	<b>Greenlake Auto Electric</b> (자동차 전기전문 수리) 국내외차 스타터 및 올터네이터 각종라이트 브레이크 엔진튼업 아크월딩 Emission 유명메이커배터리 취급, Control (개스배기량검사) 782-4885 6501 Aurora Ave. N. Seattle
<b>김치마켓</b> KIMCHEE MARKET 6400 So. Yakima Tacoma WA 98408 (206)475-6128	<b>한국관 ☎ 622-1936</b> 212 4th Ave So. Seattle 98104	<b>Skips Body Shop 838-3869</b> 완벽한기술, 완전한수리 무료토잉, 인슈런스대리취급 교포들에게는 할인봉사 839-5193 24433 Pacific Hwy So. Kent
<b>오대양식품</b> 543 N.E. Northgate Way Seattle 363-6850·365-9844	<b>장미원</b> 오후4시~새벽2시 금, 토는 새벽4시 8904 Aurora N Seattle 525-1335	

**한인업소 이용하여 한인사회 육성하자**

<b>골동품 피아노</b> <b>HO PARK ANTIQUES</b> Oriental Antiques Shop Importer & Wholesale Oil Painting Portraits 2018 2nd Ave. Seattle, WA 98121 206-343-5577	<b>간판 페인트</b> <b>Kim's Art Sign &amp; Painting</b> • 미술간판, 실내장식(Bar, 식당) 내부페인트 및 수리 곰보벽, 벽지 878-1445(시애틀) 474-4998(타코마)	<b>건축및집수리</b> <b>백광호 건축설계 사무소</b> 13434 - 40th Avenu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206) 365-2380
<b>동양 골동품점</b> <b>ORIENTAL GIFT SHOP</b> 8817 Pacific Ave. Tacoma, WA 98444 BUS: 535-6230 RES: 531-9225	<b>PARK'S SIGN 242-6801</b> 미술간판, 한문, 한글, 영어 오후3시~ 연락바람 367-0123(낮) 525-7680	<b>김스 종합건설</b> 3825-191st S.W., Lynnwood, WA 98036 <b>DAE J. KIM</b> Telephone (206) 771-8019
<b>Oriental Antiques</b> 한국골동품 도자기, 서화, 목기 매매 및 감정 14109 Aurora Ave. N. 시애틀 367-2978	<b>파리공예사</b> 각종간판, 실내외 페인팅 라이선스와 본드, 무료견적 타코마 473-3819 시애틀 523-7057	<b>ALOHA PACIFIC PLUMBING</b> 변기 세면기 목욕탕 부엌싱크 수리 및 363-5383(집)362-6368(사무실) Aloha PP205QQ
<b>세계피아노사</b> <b>쿨러 &amp; 캠볼 대리점</b> 월부판매, 각종중고 그랜드 피아노 365-5540(시애틀), 582-8753(타코마), 584-1545	<b>SONG'S 페인팅</b> *내부 및 외부 *천장, 벽, 도배(월페퍼) 무료견적 곰보전문 ☎525-7680, 546-1572	<b>퀵스 랜드스케이핑</b> 콘크리트, 맨스 잔디심기, 들썰기, 공터깨끗이 및 불도저 작업 정원손질일체 무료견적 821-1960(집) 821-1178(bus)

**교회안내**

<b>시애틀 천주교회</b> 성요지 성당 매주일 오후 1시 5306 13th Ave S Seattle 838-5924	<b>타코마 천주교회</b> 성 피터 & 바오로 성당 매주일 오전 10시15분 Portland Ave & 34th Tacoma 927-9533
<b>에베렛 한인교회</b> 담임목사 고 필 균 EVERETT OF KOREAN CHURCH 1St Casino RD. EVERETT . WA 98204 353~4143 예배시간 오후 1시 30분	<b>시애틀 한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 하 경 KOREAN BAPTIST CHURCH 1306 N. 165th St. Seattle .WA 98133 542~4391 예배시간 : 오후 1시
<b>한인 제일감리교회</b> 담임목사 이 창 수 425 N.E. 95 th. Seattle.WA 98115 367~2178 예배시간 : 오후 1시	<b>한인 선교 장로 교회</b> 담임목사 손 학 봉 KOREAN PRESBYTERIAN MISSION CHURCH 3239 N.E. 178 th St. Seattle WA 98155 예배시간 오전 12시 522~7325
<b>한국 베헤일 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 영 규 BETHEL PRESBYTERIAN CHURCH OF KOREAN 예배시간 오후 1시 546~5214 19358 3rd Ave N.W. Seattle.WA 98177	<b>시애틀 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 찬 우 11508 Rooseveltway N.E. Seattle.WA 98125 대예배 오전 11시 오후 7시 776~5749

교회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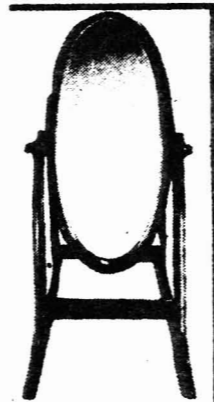
<p><b>씨애틀 한인연합 감리교회</b> 담임목사 김중원                  ■주일예배 오전11시 ■교회학교 오전10시                  ■중고등부예배 오전10시30분 ■금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226-7864, 632-5163 7시30                  1415 NE 43St. Seattle (워싱턴 대학 옆)</p>	<p><b>한인 연합 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영희                  ◆주일예배 오후1시 전도사 이석복                  ◆주일학교 오후1시 ◆한글학교 오후12시30분                  1315 N 160th St Seattle                  전화 교회 367-5858 집 774-1885</p>
<p><b>웨더럴 웨이 에덴장로교회</b>                  주일대예배 : 오후1시, 삼일기도회 : 오후7시                  주일학교 오후1시 매일새벽 : 오전5시반                  941-9684 839-6744 김성권 목사,                  1829 S 308th St. Federalway 임규영 전도사</p>	<p><b>렌톤 한인 교회</b> 담임목사 김경원                  ●주일대예배 : 오전11시,                  ●각구역예배 : 금요일 오후7시                  전화 : 226-2703                  교회위치 : 3031 NE 10th St Renton</p>
<p><b>씨애틀 한인 형제교회</b>                  ●주일대예배 : 오후1시 ●주일저녁찬양예배 : 7시 ●수요일기도회 : 7시반 담임목사 최용걸                  7th &amp; Spring(씨애틀 다운타운)                  365-6691 367-0183</p>	<p><b>타코마 한인 침례교회</b> 담임목사 문창선                  주일 : 성경공부 9시반, 낮예배11시, 밤예배7시                  수요일기도회 오후 7시, 토요일새벽기도 오전6시                  5602 112th St. SW Tacoma                  581-3144, 582-1829</p>
<p><b>성복음 교회</b> 담임목사 윤 한 두                  14537 30 th Ave N.E. Seattle WA 98115                  예배안내 오후 1시                  367-1490</p>	<p><b>한인 복음교회</b> 담임목사 이 영 준                  811 5th Columbia st Seattle WA 98101                  예배안내 오전 11시                  363-6789</p>
<p><b>타코마 한인 중앙교회</b> 담임목사 정남식                  ·주일예배 1부 : 10시, 2부 : 11시반 ·저녁예배 : 7시반                  ·주일새벽기도회 : 6시 ·주일학교 : 11시반 ·한글학교 : 주일10시 ·삼일기도회 : 7시반 ·영어교실 : 화, 목 오후6시반 9시반 3010 S. 66th, 472-9463, 475-4709(목사관)</p>	<p><b>한인 선교회</b> 담임목사 송 천 호                  515 So 312 st Federal Way WA 98003                  예배안내 1부오전 9시 30분                  2부오후 12시 30분                  838-4599 922-1611</p>
<p><b>씨애틀 한인안식일 교회</b>                  안식일 대예배(토)안교9시반, 설교11시                  성경연구회(화)오후7시반, 담임목사 유재상                  금요일저녁예배 오후7시반 부 목사 김준팔                  300 W Saar St Kent 854-1125, 8490</p>	<p><b>순복음 씨애틀 교회</b> 담임목사 박성수                  1632Broad way Ave P.o. Box 20305                  Seattle WA. 98102                  예배시간오후 1시 30 분                  546-1612</p>
<p><b>씨애틀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 상 구                  2728 N.E. 100th St                  Seattle WA. 98125                  예배시간 1부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367-4561 523-2728</p>	<p><b>씨애틀 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최 태 원                  1215 Thomas st Seattle WA. 98109                  예배시간 오후 1시                  242-0315</p>
<p><b>서부 영생 교회</b> 담임목사 한 상 국                  9252-16th Ave S.W Seattle WA. 98106                  예배시간 주일 아침 11 시 주·수저녁 7시                  금요일기도회 8시                  목사관 767-0693</p>	<p><b>와싱턴 중앙교회</b> 담임목사 유의선                  601-9 th Ave. S.E Puyallup. WA. 98371                  예배시간 주일 1시 30분 수요일 7시 30분                  철야기도회 매월마지막 금요일 10시                  교회 927-4105 목사관 941-8170</p>
<p><b>씨애틀 중앙 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 연 발                  9421 18th Ave. S. W. Seattle WA. 98106                  예배시간 오후 1시                  763-8952</p>	<p><b>와싱턴 루터교회</b> 담임목사 박 기 영                  740 So 128 th st Seattle WA. 98168                  예배시간 오후 12시 30분                  752-9696 243-8555</p>

<p><b>병원 · 한방원</b>  <b>업도승산부인과</b>                  Kent Medical Center inc P·S                  222 N.State .Kent WA WA                  (206)872-3400 631-5863</p>	<p><b>흉인표박사</b>                  신경 · 정신과전문의                  901 Boren Ave                  Cabrinitower#707                  (206) 587-5747 587-3748</p>	<p><b>중국한의원</b>                  605 So. Jackson St                  Seattle. WA 98104                  (206)628 - 0950                  한의사 유 환 복</p>
<p><b>로명재산부인과</b>                  * 201 N. Division St                  Auburn .WA 98002                  (206)833-2580                  * 1711 324th PI                  Federal Way .WA 98003                  (206)927-8440</p>	<p><b>HOI W. LEE 치과</b>                  1011 N. 2nd St Renton                  (206)226-8151 226-4467</p>	<p><b>박약국</b>                  8512-20th Ave N.E.                  Seattle WA. 98115                  (206)527-3020 3010</p>
<p><b>이창준 산부인과</b>                  10109 Plaza Dr S.W.                  Tacoma WA. 98499                  (206)584-4355/4357</p>	<p><b>손대관 치과</b>                  HAS AN APPOINTMENT WITH                  ROGER D. SOHN, D.D.S., P.S.                  110 D St S . E.                  Au Auburn.WA 98002                  (206) 833 - 3770</p>	<p><b>부동산</b>  <b>노명건 부동산</b>                  Century 21                  North Homes Realty. Inc.,                  낮 : 743-3202, 568-5551</p>
<p><b>오덕주산부인과</b>                  23rd Ave S .W. &amp; Meridian So                  Puyallup WA 98371                  (206) 848-4453                  1624 So. "I" St                  Tacoma WA. 98405                  (206)627-0909</p>	<p><b>진한방원</b>                  461 E. Hastings St.                  Vancouver B.C;                  Canada V6A IP5                  (604)255-7033</p>	<p><b>채태용 부동산</b>                  *비즈니스 전문 Broker                  집 588-4343, 582-5990                  사무실 584-2700</p>
<p><b>박창식내과</b>                  801 Broadway #912 Heath                  Prot Bldg                  (206)324-5867 827-4014</p>	<p><b>한성한방원</b>                  11226 Bridgeport Way SW                  Tacoma WA                  (206) 582-9060 537-2068</p>	<p><b>오화실 부동산</b>                  주택전문                  455-9571 455-8370(사무실)</p>
<p><b>이영주치과</b>                  10209 Bridgeport Way S.W.                  Tacoma WA?98499                  (206) 581-1412                  *Stevens Dental Centel                  20728-76th Ave W. Edmonds                  (206)775-3456</p>	<p><b>보혜사한방원</b>                  8107-22th Ave S .W.                  Seattle WA. 98106                  (206)762-8566/6493</p>	<p><b>김현중 부동산</b>                  * 집없으면 집을 사시고                  집 있으면 집을 파세요.                  * 각종사업, 주택, 토지투자 상담                  774-7828, 774-3839</p>
<p><b>조병규치과</b>                  * 215 N. 125th St                  Seattle WA                  (206)367-5570 776-8512                  * 1815. So. 324 th PI                  Federal Way                  (206) 838-3180(Seattle)                  927-4996(Tacoma)</p>	<p><b>제일한방원</b>                  17421 . 30th .Dr S.E.                  Bothell. WA 98011                  483-8136 이 명 심</p>	<p><b>장국경 부동산 244-9114</b>                  Washington Realty는 모델매매,                  건축물전문,                  건축자금 융자도 5년까지                  해드립니다.   사실분, 파실분들                  연락바람 838-3324(집)</p>
<p><b>양장점 세탁</b>                  핑키양장점 프라자원아워크리너                  PINKY DRESS MAKING                  9741 Holman RD .N.W.                  Seattle. WA 98117                  784-1624 김 재 희</p>	<p><b>동서부동산</b>                  EAST-WEST BROKERS                  8624 Pacific Ave # 12                  Tacoma . WA 98444                  537-3214 이 상 진</p>	

**한인업소 이용하여 한인사회 육성하자**

회계사무소	보 험	선물센터
<b>김 중 구 회계사무소</b> 공인세무사 장부정리, 개인 인감, 362-8370 신속 정확한 서비스 367-0655 절대 비밀보장, 재무 상담환영 13051 37th Ave. NE Seattle	<b>박 유 철 종합보험</b> 자동차, 화재, 상업 생명, 주택  241-2888(사무실) 362-9565(집)	<b>오로라선물센터</b> 14107 Aurora Ave. N. 362-8617 Seattle, WA 98133(집) 454-2087
<b>심상연 인컴 택스</b> 중소기업장부정리, 세무상담, 일반인컴택스 은행용자 상담, 퇴직연금상당, 공증업무취급 10307 Bridgeport Way Tacoma 474-1802 582-1644	<b>정문언 종합 보험</b> ★자동차 ★생명 ★주택 ★건강 ★사업  10059 Aurora N. Seattle 523-9111, 523-8944(집) 582-8989(타코마)	<b>미 도 파 백 화 점</b> 런던포그 딜러쉽 고급화장품 비타민, 골프세트, 비데오, 칼라TV, 악세사리, 시계일절 테니스라켓 584-1991
<b>이규영 계리사</b> 컴퓨터로 장부정리 일반 인컴택스, 중소기업 장부정리, 퇴직연금상당, 세무상담 공증업무, 기밀절대보장 2809 4th Ave Seattle 623-4181~3	<b>강성국 에퀴터블 보험</b> 생명 및 건강보험 전문  588-3112(타코마) 624-8380(시애틀)	<b>타코마종합선물센터</b> 골프채, 테니스라켓, 전기제품 오메가시계, 화장품일절 11602 Pacific Hwy Tacoma Bus 581-1100, 582-6044 Res 581-0515(24시간)
인 쇄 소	<b>최영세 에퀴터블 보험</b> 생명 · 건강 · 자동차 · 주택  Bus: 624-8380 Res: 365-0085	<b>신신 선물센터 *시계 *보석</b> * 런던포그 딜러쉽, 회득 * 화장품 일체 * 골프 세트 * 비타민 582-2975 8518 So. Tacoma way
<b>쇼어라인 그래픽스</b> 3008 NE 127th St Lake City Way 와 127가 364-6632	<b>이 형 석 - 보험</b> 자동차 전문 생명 · 교육성 · 장래성 · 사업 · 건강 · 주택 사무실 447-2900 직통 447-2908 자택 243-4315	<b>테레비 꽃집</b> <b>한국 테레비 냉동</b> 회원비 없음 (전 멜로디 T.V.) 비데오 테이프 대여함. 31219 Pacific Hwy S. Federalway 98008 839-7155, 952-5140 타코마
<b>뉴모드 인쇄소</b> 6433 So. Tacoma way Tacoma 475-7429	<b>결혼 화장품</b> <b>ABE 결혼상담</b> ◆ 초재혼(비밀보장) ◆ 크리스찬환영 ◆ 영주권문제상담 (한국에지사설치) <b>폴라 화장품</b> Director 전데레사 미용상담 전화환영 ☎743-7984 <b>폴라화장품 Director mrs 박</b> 배달가능 Lakecity 365-1230 * 미용상담 환영	<b>킹 TV (우와지마야 앞)</b> * 소니 딜러쉽 회원 모집중 * 한국에서 직수입한 MBC KBC 한국 비데오 ☎624-9815, 747-7234
<b>Express Copy &amp; Print</b> 각종인쇄, 명함, 청첩장, 회보 등등... 여권, 결혼사진 ■ 사진현상 8415 Greenwood Ave N. Seattle 789-7272	<b>BRIM PRESS</b> (각종 한글 및 영문인쇄)  450 S.W. 153rd SEATTLE, WA 98166 (206) 433-8811	<b>PACIFIC 531-8408 이종만</b> <b>ROSE HOUSE</b> * 퍼시픽 장미의집 * 실내장식, 결혼, 개업, 파티, 장례, 모든 꽃화환 11812 Pacific Ave. Tacoma,
<b>하바하바사진관</b> 5610 So. Yakima Ave. Tacoma WA. 98408 (206) 475-6226	<b>POLA 화장품 Director Hyuk Han</b> 미용상담 581-5151, 5152 세일스할분구함, 전화환영 964-5375	<b>스트디오 꽃집</b> 결혼약혼식꽃 실내용화초 각종축하용화분 장례식꽃 4222 E. Madison Seattle WA 98112 325-5032 367-1534

## Mirror & Picture






- 각종 거울 542-2323
- 거울 실내장식 546-4808
- 옷장 거울문 <월~토>
- 상 덮개유리
- 유명화가 그림
- 성화 대표 황동규
- 표구 액자

집안장식 혹은 결혼 개업등의 선물이 필요하실때 일차 방문해 주세요

**HIGHLANDS MIRROR & GLASS CO.**  
**HIGHLANDS PICTURE GALLERY**  
 16730 AURORA N. / SEATTLE, WA 98133

SEATTLE'S LARGEST SELECTION OF MIRRORS & PICTURES



# GLASS DOCTOR

- AUTO
- COMMERCIAL
- RESIDENTIAL
- INSULATING GLASS
- STORM WINDOWS

**GLASS DOCTOR** 는 와싱턴주에서 유일한 유리시설 및 영선 후랜차이스 회사로서  
 이업계에선 가장 많은 사람의 애용을 받고있습니다.

**GLASS DOCTOR** 는 출장수선(MOBILE SERVICE) 이 그 특징으로 집이나 상점은 물론  
 자동차 유리도 직접 현장에 나가 수선해드리고 대금은 본사에서 닥의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수령하오니 전화 해주시는 수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 24<sup>H</sup> RADIO DISPATCHED HOTLINES

SEATTLE	LYNNWOOD	BELLEVUE	REDMOND	EVERETT
362-5500	774-5111	455-5060	488-1884	259-0211

# 왜 차를 싸게 팔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이익을 적게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차를 사신 교포 여러분들은 워싱턴주에서 제일 차를 싸게 사신분임을 확신 드립니다.

또한 모든종류의 새차와 중고차를 공장 도매가격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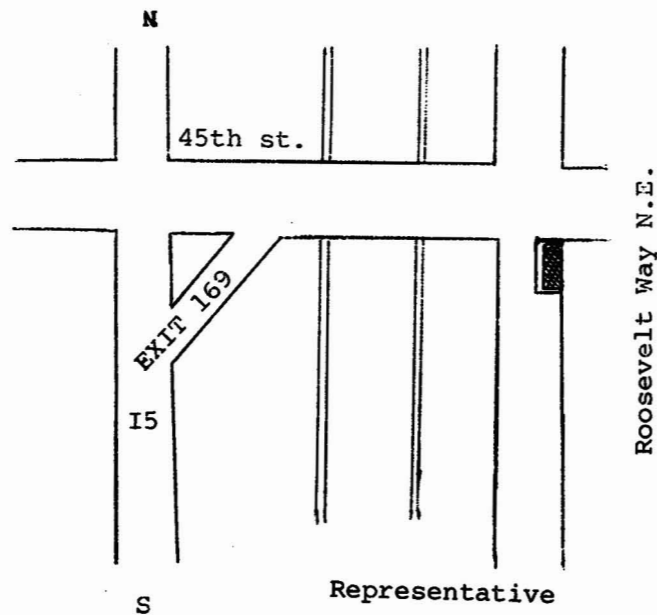
계속 신뢰와 친절로서 교포 여러분에게 바리다매의 원칙을 적용 하겠습니다.

아래 400 여대의 차종이 공장도매 가격으로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ORD	SCORT	MAXIMA
L T D	E X P	200 SX
THUNDERBIRD	TRUCK	STANZA
GRANADA	VAN	SENTRA
FAIRMONT FU TU RA	DATSUN	310
MUSTANG	280 ZX	210 TRUCK



자동차 판매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교포를 위한 한국부



최 윤 성 김 성 기

## UNIVERSITY FORD-DATSUN

4242 Roosevelt Way N.E.  
632-9966  
Seattle, Washington 98105

## 운전면허 취득 안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

### A. 시력검사

필기시험직전에 실시하는 시력검사는 안경 착용에 관계없이 0.5이상이어야 하는데, 색맹여부는 현재로는 검사하지 않는다.

### B. 필기시험

객관식으로 4지선택문제를 20문항 보는데 우리말과 영문으로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15문항이상 정답이면 합격이 된다. 그러나 도로표식에 관한 4문항중 3문제가 틀리면 불합격이 되며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연습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C. 실기시험

실기 시험은 필기 시험에 합격후 연습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연습면허 소지 후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두번 응시할 기회가 있는데 실기 시험 내용은 좌회전, 우회전 요령과 평행파킹, 일단정지, 케이코오스등의 운전기술을 심사한다. 실기 시험내용은 좌회전, 우회전 요령과 평행파킹, 일단정지, 케이코오스 등의 운전기술을 심사한다. 심사 기준이 한국에서와 다르므로 시험전에 경험자에게 연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첫단계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지금까지 출제된 문항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운행법규, 우선권에 관한 문제

1) 안전벨트는 누가 사용하는가?

- 안전벨트는 탑승자 모두가 사용한다.
- 2) 장거리 운전중 자꾸 졸리우면 어떻게 하나?  
• 커피를 마시거나 쉬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 3) 밤운전이 낮운전보다 위험한 이유는?  
•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 4) 밤에 운전중 마주오는 차량 때문에 눈이 부실때는?  
•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쪽을 내려다 보며 운전한다.
- 5) 차가 미끌어지기 시작할때 취해야할 행동은?  
• 미끌어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부드럽게 돌리고 급히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금물이다. 차가 바로 섰을때 방향을 서서히 바꿔준다.
- 6) 모든 긴급한 상황에서 적용할수 있는 규칙은, 무엇인가?  
• 행동하기전에 먼저 생각부려야 한다.
- 7) 운행중 갑자기 타이어가 터졌을 때 취할 행동은 무엇인가?  
• 핸들을 똑바로 꼭잡고 악세라이터에서 발을 서서히 떼어 속도를 줄인후 길 한옆으로 붙인다.
- 8) 운행중 차의 앞바퀴가 포장이안된 맨 땅으로 떨어졌을때 어떻게 하나?  
• 진행방향으로 그대로 가되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포장도로로 되돌아온다.
- 9) 운행중 갑자기 브레이크 페달이

- 가라 안았을 경우 어떻게 하나?
- 폐달을 가볍게 밟았다 봤다를 반복해서 펌프질을 해본다.
  - 그래도 안될때는 파킹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사용한다. 급하게 사용하면 차가 미끌어지는 경향이 있다. 기어를 넣어 둔채 엔진을 끄면 엔진이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 10) 낮에 심한 안개속을 운전할때는?
- 전방 100피트 정도가 보이지 않을때는 항상 헤드라이트를 켜야 하는데 안개속에서는 낮은 불을 켜야한다. 높은 불은 안개에 반사되어 오히려 더 안보이게 된다.
- 11)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운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 고속도로 운전은 차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 표시를 잘 지켜야 하며 자신감과 운전기술이 있어야 한다. 겁이 많거나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고속도로 운전을 피하는 것이 좋다.
- 12) 고속도로에서 빠져 나가력할때 언제부터 신호를 해야하나?
- 감속선에 진입하기 전 최소 300피트 전에 신호를 준다.
- 13) 고속도로로 진입할때, 진입로가 아주 짧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 진입하기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 다른 차량만큼 속도를 올릴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달려도 뒤에서 오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 있을때까지 기다려다 진입한다.

- 14) 고속도로 운행중 자기가 나가야할 Exit 을 지나졌을 경우 어떻게 하나?
- 운행속도를 줄이지않고 다음 Exit 까지 계속 주행한다.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저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 15)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 운전자가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시야도 좁아지며 반사기능의 둔화로 운전기능을 발휘할수 없다.
- 16)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위해 업무에 돌입은 무엇인가?
- 자기차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다른 차량들의 흐름에 맞추는 것이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가는 것은 위험하다.
  - 항상 급정거를 대비하여 차간거리를 충분히 두어야한다. 특히 눈, 계, 안개등으로 시야가 좁을때에는 그만큼 차의 속도를 낮추어야한다.
  - 운행전에 차의 정비상태(브레이크, 핸들, 엔진오일, 라디에터, 타이어등)를 점검하고 자신의 건강상태(피로, 음주, 질병 등)를 업무에 두어야 한다.
  - 운행하려는 코스나 도로의 상태, 날씨등을 미리점검하고 출발해야한다.
- 17) 매킨은 어느 경우에 우선권이 있나?
- 흰 지팡이나 금속으로 만든 지팡이를 들었거나 인도견 (장애물 인도하는 개) 의 인도를 받으며

- 18) 사람이 다니는 길인 보도가 없을때는 어느편으로 걸어가야 하나?
- 왼쪽(마주오는 차를 잘 볼수 있기 때문).
- 19) 방어 운전이란 무엇인가?
-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생길수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운전자로 운전자가 항상 전후 좌우를 살펴 사고를 예방하는 운전이다.
- 20) 사도(집앞의 길)에서 차를 추진하려할때 근처에 아이들이 놀고있을때는 어떻게 하나?
- 차에서 내려 아이들에게 경고하고 아이들의 눈을 세고 차에 돌아와 후진전에 그 숫자를 확인하며, 안전할때 후진한다.
- 21) 로타리에서 로타리로 들어서려 할때 이미 들어서있는 차량이 있으면 누가 우선권이 있나?
- 이미 로타리에 들어선 차량이다.
- 22) 좌회전 신호를 주고 좌회전을 하려할때 맞은편에서 똑바로 오는 차량이 있으면?
-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기다렸다 안전할때 회전한다.
- 23) 고차로에서 진입신호를 받았으나 다른차들이 고차로 건너편에 밀려 있을때는?
- 바로 고차로 안으로 진입할수 없고 기다렸다가 건너편에 자기 차가 충분히 들어선 자리

- 가 생기면 천천히 고차로를 건너는다.
- 24) 앰블런스나 소방차같은 긴급출동차의 사이렌소리가 들릴때는 어떻게 하나?
- 일단 길 오른쪽으로 비켜서다가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오는지 확인하고 그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 25) 교통표식이나 신호등 또는 교통수경이 없는 고차로에서 두대의 차가 서로 직각이 되게 동시에 정거하였을 경우는?
- 운전사의 위치에서 보아 오른쪽에 있는차가 우선권이 있다
- 26) 사도(집앞 차고길)에서 공로(일반차도)로 들어가려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
- 보행인과 오는 차들에게 우선권을 양보하고 안전할때 들어간다.
- 27)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를 추월할때는 어떻게 하나?
- 추월하려는 방향에 따라 신호기(깜박이)나, 손으로 신호를 주고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있을때 추월하는데, 일반적으로 추월차의 왼쪽으로 한다.
-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올때는 뒷차와의 거리가 200피트 정도되며 가끔 추월한 차의 범퍼가 백미러에 보일때 들어간다.
- 3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오른쪽 차선으로도 추월할수 있다.

■추월할 때 유의할 문제

- 28) 어떤때에 오른쪽으로 추월할수 있나?  
 • 앞에 있는 차가 좌회전하려 고 신호할때나, 2차선 이상의 일방통행로, 그리고 3차선 이상의 고속도로 상에서 추월금지 표시가 없을때 가능하다.  
 29) 고 차로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건너가기를 기다리며 앞차가 서있을때는?  
 • 앞차를 추월해서는 안된다.  
 30) 뒤에서 오는 차가 추월하려고 할때 어떻게 하나?  
 • 지금까지의 속도를 약간 늦추어 주고 추월한 차가 완전히 오면 차선으로 되돌아온 다음 다시 자기 속도로 돌아간다.

### ■신호와 회전에 관한 문제

- 31) 중심가를 벗어난 외곽지대에서 스쿨버스가 빨간 불을 번쩍이며 서있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학교 버스와 같은 방향이면 반대방향이건 상관없이 정지하여야 한다. 단 버스 운전자가 가도 좋다고 수신호를 할 때는 주의해서 천천히 진행한다 좌회전을 하려고 고 차로 한가운데까지 왔을때 어떻게 하나?  
 • 마주오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길 오른쪽까지 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에 차는 가능한 한 중앙선 가까이 접근시켜 직진차량이, 쉽게 지나갈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 행들을 똑바로 하며 앞바퀴를 왼쪽으로 틀어서는 안된다. 이는 뒤에서 오는 차량이 반출 경우에 마주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3) 회전하기 얼마전에 신호를 주어야 하나?  
 • 적어도 100피트 전방에서 신호한다.  
 34) 우회전을 하려할때 도로상의 위치는?  
 • 도로의 맨우측 보도 가까이 에 둔다.  
 35) 2차선으로 된 일방통행로에 좌회전을 해서 틀어갈때 어느 차선으로 진입하나?  
 • 왼쪽 차선으로 진입한다.  
 오른쪽 차선으로 가고져 할때도 일단 왼쪽 차선으로 진입했다가 바뀌어야 한다.  
 36) 회전할때 회전신호 이외에 무엇을 해야 하나?  
 • 전후 좌우를 살펴 안전한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미끌어지지 않고 회전할수 있게 한다.  
 37) 신호등, 표지판, 교통수경중은 전자는 어느지시에 따라야 하나?  
 • 교통수경의 지시가 최우선이 다.  
 38) 어떤경우에 흰색 외줄들 건너도 되는가?  
 • 차선을 바꾸는 것이 안전한 경우에는 건너수 있다.  
 어느경우에 흰색 외줄들 건너될수 있나?  
 • 차선을 바꾸는 것이 안전한 경우에는 건너수 있다.  
 어느경우에 흰색 외줄들 건너될수 있나?  
 • 차선을 바꾸는 것이 안전한 경우에는 건너수 있다.

-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한 필요에 따라라 건너수 있다.  
 40) 고 차로에 이미 진입했을때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면 어떻게 하나?  
 • 빠른속도로 지나가야 한다 고 차로에서 붉은 신호등과 함께 녹색화살표의 신호가 켜졌을때 무엇을 뜻하나?  
 •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뜻인데, 이 고 차로에 틀어 서 있는 차량이 있거나, 횡단로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에 우선권을 양보해야 한다.  
 42) 깜박이는 붉은 신호등은 무엇을 뜻하나?  
 • 완전히 선다음 가까이 오는 차나 길들 건너는 보행자가 없을때 진행하라는 뜻이다.  
 43) 깜박이는 노란색 신호등은 무엇을 말하나?  
 • 주의해서 진행하라는 뜻이다.  
 44) 스탑(Stop)싸인이 뜻하는것은 무엇인가?  
 • 고 차로에 들어서기전에 완전히 정지하여 이미 틀어선 차나 스탑싸인이 없는쪽 길에서, 가까이 오는 차에게 우선권을 양보한후에 진입하라는 뜻이다.  
 45) 운전자에 왼손이 창밖에서 하를을 가르킬때 무엇을 뜻하나?  
 • 우회전 하겠다는 뜻이다. 운전자의 왼손이 창밖에서 따를 가르킬때 무엇을 뜻하나?

- 천천히 가거나 정지한다는 뜻이다. (손을 상하로 흔들때는 양보해달라는 표시)

### ■교통표지에 관한 문제

- 47) 스탑(Stop)표지판은 어떤 모양인가?  
 • 빨간 바탕에 흰글자로 되어 있다.  
 48) 양보 표시는 무엇을 뜻하나?  
 • 낮은 속도로 천천히 고 차로에 진입하며 필요할때는 정지해서 보행자나 자동차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뜻인데 안전할때는 반드시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49) 네모꼴로 된 표시들은 무슨 표시인가?  
 • 속도 제한, 추월금지, 외곽통행, 회전금지 등의 표지판은 네모로 되어 있다.  
 50) 다이아몬드 형으로 된 표시판은 어떤 것들이 있나?  
 • 좁은길, 좁은다리, 분리대가 있는 길등의 주의 표시이나 경고 표시는 다이아몬드꼴로 되어 있다.  
 51) 전방에 위험이 있다는 경고표시인 무슨색으로 되어 있는가?  
 • 노란바탕에 검은 글씨, 혹은 그림으로 표시 된다.  
 52) 고속도로에서 나가는길(Exit)을 말해주는 표시는 무슨색판인가?  
 • 녹색바탕에 흰글씨로 되어 있다.  
 53) 길의 오른쪽 끝을 표시하는 흰 줄이 사선으로 변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 포장도로의 넓이가 좁아지기

나 차선이 높고, 주는 것을 말한다.

- 54) 저속 차량(트랙터나 공사장비차) 표식은 어떻게 생겼나?
  - 삼각형이며 형광도료를 붉은색으로 칠해서 잘 반사되게 되어 있다.

### ■주·정차와 속도에 관한 문제

- 55) 교차로에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으나 정지선이 없을 경우 어디에 정차하나?
  - 횡단보 가까이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정차한다.
- 56) "No Stop"싸인이 있는 곳에 정차할 경우는 언제인가?
  - 다른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나 교통수경의 지시를 받으면 정거할 수 있다.
- 57) "No standing" 싸인이 있는 곳에 정차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가?
  - 사람을 내리게 하거나 태울 때에 일시적으로 정차할 수 있다.
- 58)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 인도상이나 횡단보도, 그리고 교차로에는 주차할 수 없다.
  - 이미 주차해있는 차옆에 더 붙박음을 해서는 안된다.
  - 건설공사장이나 장해물 등에 평행으로 주차하거나 그 건너편에 주차해서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
  - 안전지대와 인도석사이나

안전지대 넘어 30피트 이내는 주차허가 표식이 없는 한 주차할 수 없다.

- 육교나 높은 구조물, 골목이나 천도상에는 주차할 수 없다.
- 소화전 가까이(15피트 이내) 나 버스정류장에는 주차할 수 없다.
- 59) 평지로 된 도로상에 평행주차할 때 어떻게 하나?
  - 인도석이나 길의 가장자리에서 12인치 이내로 하며 차의 진행방향으로 차머리를 향하게 해야 한다.
- 60) 주차후 차들이 다니는 도로쪽 운전석에서 나올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도로상에 다른차가 가까이 오지 않나 충분히 살핀후 안전할 때 문을 연다.
- 61) 차를 평행 주차했다 나올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회전신호나 수신호로 보행인이나 오는 차량에 신호를 하고 주의를 살피 안전할 때 나온다.
- 62) 미끄러운 길에서 정차할 때는 어떻게 하나?
  -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밟았다 났다해서 속도를 줄인 다음 서서히 정차한다.
- 63) 와싱턴주에서 속도제한 표식이 없을 때 가장 빠른 운전속도는 얼마인가?
  - 55마일 이다. 시내에서는 20 마일 이다.
- 64) 고속도로를 나와서 일반도로를 운전할 때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자주 속도계를 살펴서 일반도로에 익숙해 지도록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 65) 고속도로 진입로에 가속차선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속도를 높여서 다른 차량들속에 쉽게 섞여들게 하기 위해서이다.
- 66) 밤에 운전을 하는 경우 적당한 속도는 어떻게 되나?
  - 자기가 운전하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치는 거리안에서 정거할 수 있는 속도이다. (낮은 불의 전조 거리는 350 피트)
- 67) 어떤 경우에 자동차의 머플러를 변형시키는 일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나?
  - 자동차의 소음을 증가시키는 머플러 변경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68) 쓸수없는 자동차를 공공도로상에 세워두려면 어떻게 하나?
  - 쓸수없는 차라도 공공도로상에 세워두려면 차량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 69) 앞차를 추월할 때 길가 포장이 안된 오른쪽 길로 추월할 수 있는가?
  - 법으로 금지 되어 있다.
- 70)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교차로에서의 차량속도는 얼마나 되나?
  - 시속 15마일이다.
- 71) 고속도로에서 교통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도로상에 차를 세워둘 수 있는가?
  - 고속도로상에서의 주차는

72) 반드시 포장도로를 벗어 나야한다. 왕복차도의 언덕길에서 차를 내리막길에 주차시킬 경우 취해야 할 행동은?

- 미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길의 오른쪽 모서리를 향해 앞바퀴를 돌려 놓아야 한다.
- 73) 주차등 만을 켜 채 운전하는 것은?
  - 법률로 금지 되어 있다.
- 74) 이미 주차하고 있는 차를 받았으나 주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
  - 차속이나 차외에 쉽게 보일수 있는 위치에 자기의 주소를 알려 주는 간단한 메모를 남겨놔야 한다.
- 75) 길가 모서리에 노랑철이 된곳에서 주정차 할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 짐을 싣고 내리거나 승객을 싣고 내릴 경우에만 일시 주, 정차할 수 있다.
- 76) 자전차는 도로상 어디로 다녀야 하나?
  - 보도 가까운쪽에서 자동차들과 같은 방향으로 다녀야 한다.
- 77) 승용차량도 트레일러를 끌수 있는가?
  - 오직한개의 트레일러 만을 끌 수 있다.
- 78) 운전자가 운행중 먹어선 안되는 약은?
  -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약은 어떤환경에서든 금지되어 있다.
- 79) 자전차를 도로상으로 타고 가는 사람은?

- 자전차나 오토바이들도 공로상에서는 자동차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80) 트레일러를 달고 가는 차량이 뒤에서 오는 차를 볼수 없을 경우는 ?
- 차량의 왼쪽과 오른쪽에 거울을 달아서 뒤에서 오는 차량을 볼수 있게 해야한다.
- 81) 학생들이 상하학 할때의 차량 속도는 ?
- 시속 25마일이다.
- 82) 마시던 술병은 어디다 보관하나 ?
- 마시다남은 술병은 반드시 트렁크에 두어야하며 차안에 가지고 다녀서는 안된다.
- 83) 최중은전으로 체포될경우 알콜여부의 실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
- 운전면허가 6개월간 사용정지처분된다.
- 84) 언덕길에서 올라가는 차와 내려오는 차중 어느것이 우선권이 있나 ?
- 산 언덕쪽으로 올라가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 85) 햇볕이 강하게 비치는날 회전을 하려할때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가 ?
- 깜박이로 신호를 주는것이 외에 수신호를 하는것이 안전하다.
- 86) 길에 속도제한 표식이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 ?
-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법으로 정한 것이므로 최고속도

와 최저속도를 지켜야 하는데, 일기와 도로사정에 따라 다르다. 최고속도는 최상에 상태에서 달릴 수 있는속력이다.

### 藥이 되는 野菜와 野草 산초나무

산초에는 대뇌를 자극하고 내장기관을 활발하게 해 주고, 위장의 활동이 약화된 소화불량증을 호전시켜 주고, 복부에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해 주는데 효과가 있다.

약효와 사용법 :

건위(健胃), 위약(胃弱), 위장 카다루, 더위 먹은대, 식중독 산초 열매와 그 열매의 껍질과 잎을 끓여서 마신다.

이뇨(利尿) : 말린 열매 15그램에 물 400CC를 붓고, 그 양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질 때까지 끓여서 마신다.

타박상, 어깨가 빠근한데(결림), 요통(腰痛), 부스럼 : 산초 잎과 열매를 끓인 물로 습포를 한다.

피부병, 무좀 : 열매와 잎을 질게 끓여서 환부에 바른다.

### 마늘

마늘은 옛날 기원전 3,200년 내지 2,780년 경의 애굽 왕조시대에 양파와 함께 식용으로 사용되었던 사실이 애굽의 분묘(墳墓)의 벽화에 나타나 있다.

약효와 사용법 :

강장(強壯), 식욕증진, 소화촉진, 변비 : 위점막(胃粘膜)을 자극하여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주고, 소화를 도와 주며, 또한 장점막(腸粘膜)을 자극하여 장벽(腸壁)의 흡수작용을 왕성하게 해 준다.

위경련, 위장염 : 찢어서 오블라아트(먹기 어려운 가루약 따위를 싸는데 사용하는 것)에 싸서 먹는다.

고혈압, 관절염 : 잘게 썰은 마늘을 냄비에 넣어 약한 화덕 불 위에 얹고 잘 저으면서 삶으면 끈적끈적한 것으로 변한다. 거기에 달걀을 넣어 볶은 후에 가루를 만든다. 그 가루를 식간(食間)에 차를 만들어 마신다.

감기 : 마늘을 찢어서 간장을 조금 섞어 끓는 물이 담긴 찻잔에 넣어 마신다.

충치(蟲齒)로 이가 아플 때 : 찢은 마늘을 앓는 아에 붙인다.

## 교통 표식

1. 스톱싸인 :



(붉은 바탕에 흰 글씨)

2. 양보싸인 :



(흰색바탕에 붉은 글씨)

3. 철도·건널목 :



(노랑바탕에 검정 글씨)

4. 양방통행 :



(노랑바탕에 검은 그림)

5. 내리막길 :



(노랑바탕에 검은 글씨)

6. 미끄러운 길 :



(노랑바탕 검은 그림)

7. 좁아지는 길 :



(노랑바탕 검은 그림)

8. 분리대 끝나는 길 :



(노랑바탕에 검은 그림)

9. 진입로가 있는 길 :



(노랑바탕 검은 그림)

10. 신호등이 전방에 있음 :



(노랑바탕 검은데 녹색, 빨강 불)

11. 유턴 못함 :



(흰색바탕 붉은 원)

12. 좌회전 못함 :



(흰색바탕 붉은 사선)

13. 못들어감 :



(흰색바탕, 흰색글씨, 붉은원)

14. 병원 표지 :



(청색바탕 흰글씨)

15. 분리대가 있는 길 :



(흰색바탕 검은 그림)

16. 학교 건물목 :



(노랑바탕 검은 그림)

현대인에 과제

김동진 목사  
(타코마 한인 루터 교회)

한평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여 내것을 만들고 처함이 공간에 대한 욕망이라면 순간순간을 성선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 가는 분이 있다면 그는 시간에 대한 애착과 집념이 강함본임에 틀림없다. 벌써 내가 밭을 대지 위에 딛고 서 있다는 그 자체가 공간의 신세를 지고 있다는 이 이득이 된다. 그래서인지 공간에 대한 매력은 너무도 크다. 기껏해야 서너평 땅에 묻힐것만 있다면 아무리 장신의 6취 가까운 큰 체구라해도 좁하건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밀박진 독에 물불 기라 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독의 밑을 메꿀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체는 시간에 대한 바쁜 이해의 끝만이 오를 해답을 출수 있을 것 같다. 공간을 가르쳐 줘라 한다. 별 시간은 좋으므로 생각할수 있다. 공간을 누가 많이 차지했느냐함이 이 세상에서의 힘의 척도요, 자량이 됨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앎을 다루어 남의 것까지 내것으로 만들고져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앞배기려고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배껴내기 에 기를 쓰고 덤벼 내것도 내것이려니와 내것까지 내것으로 간주하려 드니 싸움이 벌어질수 밖에 없다. 한 두차례의 결친 세계대 전쟁이 가져다준 교훈이 있다면 빼앗으려는 자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지금도 이 경고를

아랑곳없이 그저 제 그릇만 채워드리고져하니 이런 고비를 한번더 쳐주어야 할것만 같다. 공간에 대한 매력은 이로독 강한 것이다. 그러나 돌아갈때는 한숨의 울음으로 땀의 땅에 파묻히게 되니 공간에서 산다 땀의 공간을 차지하는것뿐 그것마저 시간의 흐름에 파묻혀 아예 종족을 감추게 된다. 몇천년이 지난 이들의 그 무덤의 공간의 모습을 누가 그대로 보존할수 있다 생각할수 있으랴! 그저 임시로 비석을 해 세워 그속에 틀어 있겠지 하지만 한갓 슬픔의 외로의 탈출구를 마련한것뿐 그 밖 에 다른 것이 또 있으랴 싶다. 그러므로 세간에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 시간이란 길이 나 거리를 자로 재듯 놓고 낚음을 측정할수 없다. 설사 100년을 살았다 해도 그저 헛되게 시간과 흥정하며 살았다면 하루를 참되게 산 사람보다 못한 삶이 아닐까 한다. 시간은 이렇게 내혹하며 준엄하다. 국민학교 어느 여선생의 회초리 같을때도 있다. 그러나 그런곳에 오히려 시간의 묘미가 있다 하겠다. 내가 80을 살았던 90세를 살았던 오태산계 문제 가 아니라 어떻게 왜 살았는가 문제다. 공자님이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는 삶을 살라고 가르침도 여기에 있다. 보람이란것을 가시적인 안목으로 생각한다면 그늘이 제아무리 적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보람이란 그릇을 메추 가란 바다에 모래알 던지기 일수 밖에 없다. 누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보나 하지만 작고로 지극까지 이런 어리석음의 연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은 길로만 걸어

갔지, 좁은 길로 걸어 감중을 몰랐다. 성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넓은 길로 인도 하는 것은 길은 넓어 그리로 걸어가는 자가 많으나 좁은 길은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했다. 모두가 쉽게 그리고 빨리 살고져 함이 인간의 상점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그런사고의 기를속에 에 점점 좁이 먹고 녹썩락으로 이제는 되는데로 고베빠진 황소 모양 제멋대로 날뛰게 내버려 둔다. 한동안은 제멋대로라 그 이상 더가는 기쁨이 어디 있으리 싶었으나, 오히려 고베에 매인 몸이 되어 주인의 사랑을 받았던 그때 가 더욱 그럭저럭 암자가 다시 돌아옴을 암자에 비유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 현대인은 확실히 고베풀린 암자이다. 그는 공간을 두루 헤메이며 자기가 기거해야할 안식처를 두루 찾아온나 이곳 저곳을 찾아 한없이 바쁘고 있을 뿐이다. 누가 눈이 있어 그들의 구조선의 흔드는 기발을 보며, 누구의 키가 그들의 부르짖는 음성외 귀를 기울인단 말인가? 이것을 매만지다 싫어지면 저것을 가지고 놓고 그것이 또 싫어지면 다른것을 가지고 놓고 있으나 그것도 얼마간 지속될지 저의기 의문이다.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자를 찾아 오신것이다. "아답아 네가 어디있느냐" 하는 부르짖는 음성 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인물은 그를 찾아 지금도 계속 우리를 찾고 있다. 양이 만일 참 목자를 만난다면 그 양처럼 행복 한것은 없다. 양은 참목자가 필요 하다. 현대인의 과제 가 바로 이것이다. 공간에서 가진 것이 없다하여 추하게 보이고, 없이 여

길을 받을런지 모르나 오히려 시간안에 서는 그것이 자량이 된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며 살수 있는 길은 이길밖에 없다. 문제는 항상 양자택일의 갈림길 속에서 어느것을 버리고 어느것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끝.



성업증인  
**PALACE RESTAURANT**  
**王宮 식당**

씨애틀 최초의 수타국수집  
각종 북경식 중화요리 일체  
수타국수 전문

영업시간: 오전11시30분~오후10시  
\* 넓은 주차장\*  
(씨애틀 다운타운에서 남쪽으로 10분 거리)

**723-1958**  
7119 Empire way So. Seattle 98118  
主人 김원규 부

■ 언론 횡포에 대한 소고

김 상범

날이 갈수록 세상은 각박해지고 오랜동안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온갖 신념의 근거, 가치체계, 판단의 규범들이 황폐해져가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도 모두 편파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져 사고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는 현재, 어디까지나 사회윤리와 사회공익속에 선구자 역할을 담당해야 할 언론인들이(?) 정치적으로 꼭두각시 노릇내지는 몇몇 단체들의 인심이나 언으려는듯한 기사가 온통 판을치고 있는 다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편협되고도 독선적인 사고 체계속에 갇혀 신문의사명과 책임한계를 저버린채 차별과 차이를 두고 그 차이를 빙자하여 심한차별을 할뿐 만 아니라, 어떤의견의 차이나 경쟁을 계몽해야 할그들이 본열에 앞장서서 필대를 마음대로 휘둘러버리고, 더우기 마치 언론이 무슨큰 무기인양 착각하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사람들은 괴관성없는 너절한 이유를 들어,오도하며무참히 '쫓잡는' 염라대왕같은 언론횡포를 무수히 보아오는 현실이다. 적어도 언론인(?) 이란 그 자체가 장돌맹이 내지는 술장사나 먹는장사가 아니라 는 사명감과 책임으로 선도하고 이끌어 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담보다는 불확를, 칭찬보다는 비판을, 발전보다는 본열을 조성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공평한것은 불공평으로 불공평한것은,공평한것처럼 기사화하는 그의도는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해서 절름발이 언론이라고 규정짓지않을수

가없다. **천안총과천로** 떠들어대고 허의를 진실인척하며 종청무진으로 순취한 온전수처럼 끌고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것인가. 신문 기사를 옛부터 "무관제왕"이라 일컬은것은 일반인들이 두려워하는 불의를 개파하고, 진리에 앞장서서 선도할수있는 직업이라해서 왕관은 비록 없지만, 제왕이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별명이었던것이다. 요즘 기사를 읽 어보면 저속이나 한심스럽고 개란하지 않을수 없다. 잘못된 곳부터 파헤치질않고 잘못된곳을 파헤치는 곳을 마구두드려 잡는듯한 인상이 너무나도 짙다. 독자들은 논똥장님이나 괴머거리 내지는 의식판단이 전혀없는 정신박약아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기사들이 난무한단 말인가? 정해진 사회 규범대로 살려하고 공정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사회에 흠,항물을 끼얹는 언론도 언론이라 칭할수 있을는지? 그냥 참고 읽 기에는 너무나 한심스럽고 불안하다. 독자가 알권리를 은폐하려고, 불필요한 사적인 내용을 실어 이사회를 본열시키는 행위는 마땅히 독자들에게 의해 비판받고 자성하는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간접적인 범죄를 한인사회에 저지르는것으로 간주하지 않을수 없다. 불의를 보고도 못본척하고, 불의를 들어도 못 들은 체하며 불의앞에 입을 막으려 한다면 그 언론은이 교포사회에 악순환을 조작하는 주역으로서 마땅히 독자들의심판대에 서야 할것이다. 더욱이 한인사회 단체가 믿음의 다르다고 이단으로 낙인찍고 정책이 다르다고 반국가 반민족의 낙인을 찍는 황량한 풍토속에서 더욱 부체질하고 부추기는 언론

풍토는 하루빨리 이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는게 필자의 주장이다. 좀더 건전한 풍토를 이루어야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할이민사회가, 기자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언론인(?) 에 의해 한인사회가 황폐되어 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여하간 어떤 상황하에서도 이 한인사회는건전하게 육성되어야 하며, 명량한 기를위에 서야한다는 대명제가 존재하는한 어떤침해도 어떤불확도, 어떤 파괴도, 존재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분명히 하는 책임있는 언론인들이 되어 달라는 간절한 부락을 끝으로 필을 놓을까 한다.

아침

김기현

아침이 된다.  
고기 비늘인양 눈부시다.

이슬 먹음은 포도알이  
경사면에 던지는 일곱시의 그림자

배차제 본으로 단장한 내 소녀는  
향기로운 장미꽃 웃음  
소박한 메프론을 입었다.

이 아침의 식탁 메뉴는  
맑은 새소리의 플라잉  
이슬로 꿇인 스우프  
또한 스페셜 메뉴는  
구름으로 만든 아이스 크림 이란다.

충족할줄 모르는 내 식욕은  
조개껍질 같은 귀에다 속삭인다.

소녀의 귀는 금시 꽃잎으로  
물들었다가 나비 마냥  
헐헐 날아가 버린다.



**수타국수**

# 태화각

한국에서 30년 경험을 살려  
한국식 중국음식으로 잘모십니다.

6312 NE Bothellway Seattle, 98155  
☎ 485-4020

■ 토막소식

■ "청년 심령 대부흥 성회 개최"

씨애틀 기독교청년 연합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청년부흥회를 개최 한다고 하는바, 청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 래

1. 일시 : 1982년 9월 23일 (목)  
부터 9월 25일 (토) 까지  
매일 오후 7시.
2. 장소 : 씨애틀 한인 장로 교회  
2728 N.E. 100th st.  
Seattle, Wa 98125
3. 강사 : 박 기영목사  
(워싱턴 한인루터교회시무)
4. 주최 : 씨애틀 기독교청년 연합회

■ 제일 한방원 이전

웨스트 씨애틀 화이트 센터에서 성업 중이던, 제일한방원(원장, 이 명심)이 아래 주소로 이전 하였다. 많은 고객들의 내방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일 한방원 이전주소

17421 30th Dr. S.E.  
Bothell, Wa 98011

전화번호 : 483 - 8136

■ 고전무용인 모집

한국 고전무용에 소질이 있으신 분이 나, 관심이 있으신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애들에게 고전무용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분들도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조 경희 772-2110  
백 인희 643-1225

■ 장학생 모집

고 이 창희선생 기념 장학회 이사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학생모집을 한다고 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신청을 바라고 있습니다. 동 장학회는 4년전에 반족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래

- 가) 모집 인원 - 6명
- 나) 신청마감 - 1982년 10월 31일
- 다) 신청장소 - CHANG HEI LEE MEMORIAL FIUND. 2728 N.E. 100th st. Seattle, wa 98125

전화 문의처는 (206) 525-0516

동 장학회에서는 금년도 장학기금 모집 행사로 이 창희 선생 추모, 음악예배를 아래 장소에서 갖기로 하고, 많은 찬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래

일시 : 1982년 9월 18일 저녁  
장소 : 씨애틀 한인장로 교회

각종 영문 및 한글 인쇄  
**富林印刷**  
(206) 433-8811

■ 원고모집

소설 ( 단, 장편 )

수필

생활수기 ( 이민생활의 체험담 )

시

시조

희곡 및 시나리오

이상의 부분에 투고하여 주시면 본지 게재 및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할 예정입니다.  
보내실곳)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한인회소식투고환영

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미담 (불우 이웃돕기)이나 고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본 한인회 편집부로 투고해 주시면 본지 한인회 소식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 특히 이민생활에 필요한 생활 아이디어 및 정보, 교양에 관한 사항을 정착하는 여러 고민들을 위해 투고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 씨애틀·와싱턴주교민주소록작성

고민들의 편리를 도모코져 82년, 83년도 고민 주소록을 제작성할 예정이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자신의 주소를 기입 한인회로

보내주시기 앙망 합니다.

보내실곳)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한인회보 광고안내

매일 2,000부로 씨애틀 와싱턴주 거주고민들에게 배부되는 한인회보지는 바로 고민 자신들의 회보지이며 이국생활에서의 고민들의 동정을 알려주는 논이기도 합니다. 순수한 봉사단체인 한인회의 광고비로만 충당되는 한인회보는 여러분의 적극 참여없는 어려운일이라 생각됩니다.

전고민이 구독하는 이 회보지를 통한 광고효과 또한 상당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헌신적인 참여도 되고 경영하시는 사업에 위한 최대의 광고 효과도 얻고, 우리의 옛 속담처럼 이거야 말로 일거양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이시간에 연락주시면 바로 고민사회에 봉사하는 그결정이 거룩한 행동이 되십이라 단언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들은 25시 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 박창식 내과

진료과목

일난내과(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심장병, 고혈압)  
건강상담  
당뇨병 등

801 Broadway #912호  
Heath Prof Bldg 98122

☎ 624-5867 827-4014

한인회보

1982년 8월호 흥권 제 호

비매품

발행인 : 엄명보

편집인 : 박용목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TEL ; ( 206 ) 682 - 4252

● 고국의 소식과 흥취가 가득 담긴  
**週刊中央 무료배부!!**



주간中央

본 주간중앙은 중앙일보  
에독자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中央日報

광고 및 구독신청은

시애틀 ☎ (206) 838-3155

타코마 ☎ (206) 927-5915

# HABA HABA



## INSTANT 5 MINUTE COLOR PASSPORTS

SENIORS  
SCHOOLS  
WEDDINGS  
COPIES  
GROUPS  
ANNIVERSARIES  
SPECIAL EVENTS  
FAMILY PORTRA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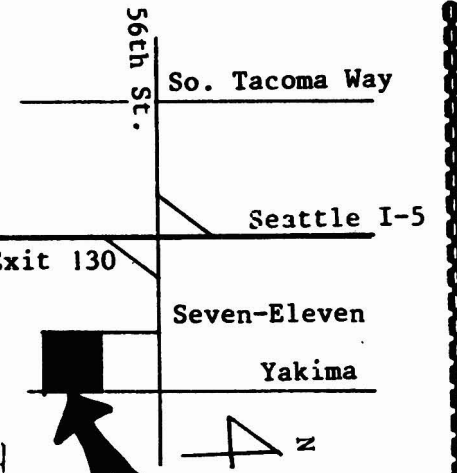
Quality Processing By  
Eastman Kodak

☎ 475-6226 5610 So. Yakima Ave.  
Tacoma WA 98408

하바하바  
사진관

PHOTO STUDIO  
Olympia

- ◆ 출장사진
- ◆ 여권사진
- ◆ 영주권, 시민권
- ◆ 가족사진, 단체사진
- ◆ 결혼, 돌, 회갑
- ◆ 비데오 촬영



\*\*\* 알 림 \*\*\*

금년 1월 4일부터  
새로 발급되는  
여권 갱신에 필요한  
사진 촬영 시작

서류 일절 구비  
무료 배부!



**MIDWAY UNION  
SERVIC(GAS)STATION**

미드웨이  
야외극장 스왓밋  
건너편

※자동차 정비 일체

※ Tune-Up ※ Brake ※ Electric

※ Engine Overhall

※ TIRES ※ BATTERIES

※도요다 닛스 혼다등 외국차 전문

23845 Pacific Highway South  
Kent WA 98031

전화 (206) 878-7500

(Across the Midway Drive-In)

2월 부터 새로운 Service 시작한 저의 Station 애용해 주시는 분께 감사  
드립니다

성심껏 풍부한 경험의 기술진으로 책임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 박약국

약사 박정일 **시애틀·타코마** 최초의 한국인 약국  
(미국에서 약대 전과정 수료)

● 의사처방을 본약국으로 가져오시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영가로 신속하게 봉사해드립니다.

● 건강상담 환영 :  
언어 불편으로 의사와 상담이 불편하신분  
한국의 친자들이 편찮으셔서 고민하시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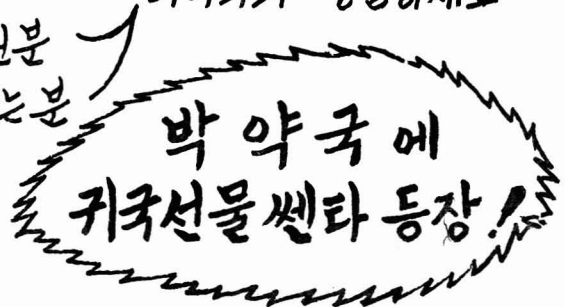
● 노인분들을 위한 메디칼 쿠폰 취급.

● 고국의 유명약, 중국약, 일본약 구비.

● 한국에서 인기 절정인 선인장쥬스 대리점.

● 회소식 : 체중조절 특효약  
탈모방지 특효약 **대 세일중!**

박약국과 상담하세요



☎ 527-3010

8512 20th NE Seattle WA

(그랜드 식품 내)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Hahn, Man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